

碩士學位論文

# 환상여행: 아름다운 중국을 찾아서

- <夢幻旅游:人一生要去的50個地方> 韓國語 翻譯論文 -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中科

秦 所 延

2010年 2月

# 환상여행: 아름다운 중국을 찾아서

- <夢幻旅游:人一生要去的50個地方> 韓國語 翻譯論文 -

指導教授 金 中 燮

秦 所 延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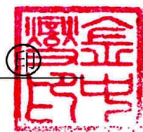
2010年 2月

秦所延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趙 成 植



委 員 金 中 燮



委 員 宋 咳 宣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10年 2月

목 차

역자서문 .....	1
1. 쭈저우원림 .....	3
2. 베이징 .....	9
3. 파리 .....	16
4. 리장 .....	19
5. 텅충 .....	25
6. 카슈가르 .....	30
7. 이리 .....	36
8. 후이저우 .....	41
9. 아리 .....	46
10. 더텐 폭포 .....	52
11. 후커우 폭포 .....	56
12. 카나스 .....	60
13. 첸둥난 .....	65
14. 칭하이후 .....	71

## 역자 서문

사회가 발전해가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김에 따라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여행이라는 형태로 채우려 한다. 현재 중국은 한국에서 뿐 아니라 세계에서 선호하는 여행지이다. 따라서 중국을 좀 더 이해하고 여행지를 또 다른 시각에서 감상하고자 이 책을 번역했다.

이 책은 기존의 여행정보지처럼 단순히 여행지의 지리나 숙박, 교통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그 곳이 갖고 있는 특색이라든가 깊은 역사, 지리적 특성, 중국의 다양한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 등이 소개 되어있다.

구성은 지역별 구분을 방식을 떠나 테마별 여행지로 구분이 되어있다.

첫째 ‘백년 도시’라는 테마로 역사 문화의 도시에 대한 소개하고 있다. 둘째 체험 여행이라는 주제로 경관이 아름다운 곳, 셋째 인간세상의 천국, 넷째 문화 유적지 탐방 등으로 나눠 중국의 명승지 50곳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번역에서는 역사문화의 도시 부분과 체험 여행 두 부분을 번역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백년 도시’라는 테마의 역사가 깊은 곳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원림으로 유명한 소주, 도시 전체가 역사문화 유적지인 베이징, 고성과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따리, 백인백색의 특징을 갖고 있는 리장, 화산군을 이루고 있어 화산과 폭포 온천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던 텡총, 위구르인들의 이국적 삶과 문화가 살아있는 카스, 중국 변방지역 역사를 써 내려간 역사적 지리적 요충지이면서 아름다운 지역적 특색을 자랑하는 이리, 마지막으로 독특한 지역적 문화를 만들어 내어 그 곳만의 분위기를 간직한 후이저우가 소개 되었다.

두 번째 테마 체험 여행은 지구상의 에덴동산이라 할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하고 있다. 신들의 고향인 듯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신장 아리지역, 아시아에

서 유일하게 중국과 베트남 두 나라 국경에 걸쳐 장관을 이루는 더넨 폭포, 천하 제일의 기세를 자랑하는 후커우 폭포, 그야말로 지상의 천국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카나스, 녹색의 땅과 하나가 되어 그들만의 문화를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소수민족들이 있는 첸둥난, 새들의 천국이라 할 만큼 청정한 지역 칭하이후를 소개하고 있다.



## 1. 쑤저우원림(蘇州園林) - 문인의 사의(寫意)산수정원

☞ 쑤저우(蘇州)개황 : 쑤저우는 타이후(太湖) 호숫가에 위치해 있다. 총면적은 8,488km<sup>2</sup>이며, 총인구는 600만 명이다. 성 서남부에 고소산(姑蘇山)이 있어 쑤저우라는 이름을 얻었고, 고소성(姑蘇城)이라고도 한다. 쑤저우는 기원전 514년에 건설되었고 오(吳)나라 왕 부차(夫差)의 아버지 합려(闔閭)가 초(楚)나라를 배신한 장군 오자서(伍子胥)에게 합려성(闔閭城)을 건축하도록 하였다. 이미 25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수나라 개황(隋開皇) 9년(서기589년)에 쑤저우라 불리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쑤저우는 화려하고 수려한 정원으로 유명하여, ‘강남원림이 천하제일이며, 쑤저우원림이 강남에서 제일이다.(江南園林甲天下, 蘇州園林甲江南)’라는 말이 있다.

☞ 쑤저우원림(蘇州園林) : 쑤저우고전원림(蘇州古典園林)의 역사는 기원전 6세기 춘추전국시대 오(吳)왕의 원유(園囿)<sup>1)</sup>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록에 따르면 개인원림(私家園林:개인소유의 원림)의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것은 동진(東晉, 4세기)의 벽강원(辟疆園)이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가 전성시기였고, 모두 200여 곳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 수십 곳 있다. 이로 인해 쑤저우는 인간세상의 천국이란 찬사를 들어왔다.

원림은 크게 주택원림(宅地園林), 교외원림(市郊園林) 그리고 사찰원림(寺廟園林) 세 가지로 구분된다. 쑤저우원림 대부분은 주택원림이다. 귀족, 관리, 부유한 상인들이 조성했으며 정교하고 우아하다. 쑤저우 고전원림(古典園林)의 전형적인 예로 졸정원(拙政園), 유원(留園), 망사원(網師園), 환수산장(環秀山莊)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쑤저우 개인원림 발전 전성기에 지어졌다. 이 정원들은 심오한 예술성, 정교한 구조, 품격 높은 우아함, 풍부한 문화적 의미 등으로 인해 쑤저우원림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정원이 되었다. 그 중 4대 명원인 창랑정(滄浪亭), 사자림(獅子林), 졸정원(拙政園) 그리고 유원(留園)은 각각 송(宋), 원(元), 명(明),

역주 1) 여러 가지 식물을 심어 가꾸거나 동물을 기르는 장소.

청(淸) 4개 왕조의 예술적 풍격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망사원(網師園)과 우원(藕園)도 이들에 버금가는 원림들이다. ‘강남원림이 천하제일이며, 쭈저우원림이 강남에서 제일이다.(江南園林甲天下, 蘇州園林甲江南)’라고 칭송받고, 쭈저우가 ‘천국’이라는 찬사도 이들 원림에서 비롯된 것이다.

### 옛 시속으로 걸어들어 가는 듯 ...

쭈저우원림(蘇州園林)에 들어서면, 마치 옛 시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쭈저우원림은 인간세상을 가장 잘 묘사하는 하나의 은유이자 세상의 축소판이며,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줄 아는 ‘이소견대(以小見大)’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이 원림은 상상을 통해 현실을 표현해 냈다. 즉, 그 자체로 문학 작품이자 예술적 은유이며 동시에 건축물이자 사회학적 비유이다. 또한 세상의 아름다움을 곳곳에 담아 놓은 곳이기도 하다.

옛 문인과 학자들이 이곳에 혼을 불어넣었다. 예로 졸정원(拙政園)은 본래 당대(唐代) 시인 육구몽(陸龜蒙)의 주택이었는데, 후에 명대(明代) 감찰어사 왕헌신(王獻臣)의 거처가 되었다. 이러한 고대 원림을 건축한 이들은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니고 있었으며, 시와 그림에 능하여, 원림을 설계할 때 그림을 기본으로 하고 시를 주제로 삼았다.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고,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음으로써, 현세에서 꿈을 실현해 냈다. 원림의 각종 비(碑), 패(牌), 현판(匾), 액자(額), 그 하나하나가 결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다. 정원을 눈으로 비유 한다면 그것들은 눈 속의 빛나는 눈동자처럼 반짝이며 빛을 뿜어내고 있고, 정원을 설계했던 이들의 아쉬움, 위안, 깨달음 등을 비춰 보여준다.

쭈저우원림(蘇州園林)은 문인들의 전형적인 사의(寫意)산수화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꿈꾸는 이들에게 적합한 장소로, 유한함 속에 무한함을 숨겨 두어, 인간의 상상력을 맘껏 펼치게 한다.

중국의 고대원림은 크게 황실원림과 개인원림(私家園林)으로 구분된다. 황실원림은 베이징(北京)일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인원림은 쭈저우가 대표적이다. 정

치, 경제, 문화적 지위와 자연, 지리적 조건의 차이로 두 원림의 품격 및 배치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황실원림은 웅대하고 엄정하며, 당당하고 화려한 반면, 쭈저우원림은 정교하고 자유로우며, 우아하고 상징성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말기에 이르러 황실원림은 기본 사상, 건축기술, 인문학적 배경에 있어 개인원림의 '사의(寫意)'적 기법을 많이 받아들였다. 개인원림은 그 특성상 면적이 좁기 때문에 변화무쌍하고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제한된 공간에 가산(假山)을 만들고 수목을 심었으며, 정자와 누각, 연못과 다리를 설치하였다. 중국의 산수화의 정취로 당시와 송사(唐詩宋詞)속에서 그려진 모습들을 표현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결코 감성만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안에 현실의 복잡한 실질적인 면들이 존재한다.

쭈저우원림은 주택과 정원이 함께 붙어 있어, 감상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으며, 주거가 가능한 주택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쭈저우처럼 인구가 밀집하고 자연 경관이 부족한 도시에 적합하게 형성된 것이다. 예를 들어 졸정원(拙政園), 유원(留園), 망사원(網師園), 환수산장(環秀山莊) 등이 고전원림 네 곳은 여러 건축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 원림들을 잘 살펴보면 개인원림의 대표를 이루는 쭈저우원림 건축의 구조나 배치, 색채 그리고 가구, 진열 등 각 분야에서 이들이 명·청(明清)시기의 민간의 대표건축물이며 이 시기 강남지역의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원림들은 나중에 강남 전체의 도시건축 스타일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민간건축의 발전을 이끌었다.

여행자들은 이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단지 원림을 산책하면서 마치 옛 사람의 생활을 엿 볼 수 있다고 느낄 뿐이다.

왼쪽에 물이 있고, 물속에 달이 있으며 달 옆에 산이 있으며, 산 사이에 또 물이 있다. 산, 물, 바람, 달에서 옛사람의 향기는 그림자가 되고 사람들의 그리움이 된다.



## 가 볼만한 곳

☞ **졸정원(拙政園)** : 졸정원(拙政園)은 쭈저우원림의 으뜸으로, 강남풍의 개인원림이다. 베이징의 이화원(頤和園), 청더의 피서산장(承德避暑山莊), 쭈저우의 유원(留園)과 더불어 중국의 4대 정원으로 꼽힌다. 원래는 당(唐)나라 때 시인 육구몽(陸龜蒙)의 주택이었으나, 후에 명(明)대 감찰어사 왕헌신(王獻臣)의 은거지가 되었다. 왕헌신은 ‘집을 짓고 정원에 나무를 심으며 채소밭에 물을 주고 채소를 가꾸는 것도 보잘 것 없는 사람의 위정이다.’라는 옛사람의 문구를 따서 「졸정원」이란 이름 지었다. 이곳은 일찍이 태평천국(太平天國)의 충왕부(忠王府)의 일부가 되었다. 졸정원에서는 창랑정(滄浪亭)을 중심으로 원림 내 주요 건축물 사방에서 유유히 흐르는 맑고 깨끗한 물을 볼 수 있다. 원림의 당(堂), 정(亭), 현(軒) 모두 연꽃으로 이름을 지었으며, 주변과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있고, 다양한 배치를 통해 단조로움을 피했다.

☞ **유원(留園)** : 쭈저우 개인원림 중 건축구조가 정교한 것으로 유명하다. 유원은 명암, 외부와 내부, 분산과 집중, 열림과 닫힘, 넓고 좁음의 대비 기법으로 공간 변화에 질서를 주었고 다시 투각 도안으로 장식된 창을 일렬로 배치시킴으로서 산과 물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그 중 오봉선관(五峰仙館), 월양정(鴛鴦廳)은 쭈저우원림 중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여 “중국남방원림의 대표작”이라 불린다.

☞ **창랑정(滄浪亭)** : 창랑정(滄浪亭)은 성 남쪽 산위안팡(三遠坊)에 위치해 있으며, 현존하는 원림 중 가장 역사가 깊다. 원림의 경치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이고, 인공적인 정교함 보다는 자연스런 미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인공으로 만든 흔적을 없애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창랑정의 바깥은 물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문은 북을 향해 열려있고 앞으로는 돌다리가 있으며, 못의 물은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 원림 내부 배치는 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건축은 대부분 산을 둘러싸고 있고 긴 복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원림 내부에도 연못을 만들고, 연못을 따라 지은 이중회랑이 구불구불 이어

저 연못 주위의 정자를 연결시켜 놓았다. 이중회랑에는 100여개의 다양한 도안으로 조각된 창틀 사이로 좌우의 경관을 볼 수 있게 했다. 원림 외부의 물과 원림내부의 산이 서로 아름다운 운치를 더하여, 더욱 돋보이게 한다. 즉 이 모두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경관을 이루는 것이다. 이로 인해 창랑정은 차경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불려진다.

☞사자림(獅子林) : 사자림은 이미 600여년의 역사를 지닌다. 원대 지정 2년(元至正二年-서기1342년) 고승 천여선사(天如禪師)의 제자들이 함께 돈을 모아 땅을 사고 집을 지어, 그의 스승이 머물도록 하였다. 원림 내부 숲에는 오랜 세월 동안 대나무가 있었고 대나무아래 돌이 있는데 그 형상이 산예(狻猊, 즉 사자)와 같다고 한다. 또한 천여선사가 절강(浙江) 천목산(天目山) 사자암에서 살았다하여 제자들이 이를 기념하여 불경에서 사자자리(獅子座)의 뜻을 취하여 ‘사자림(獅子林)또는 ‘사자림(獅子林)’이라 한다.

☞호구(虎丘) : 쑤저우 성(蘇州城) 북쪽으로 약 3천m 지점에 떨어져있다. 춘추전국시대 오(吳)나라 왕 부차(夫差)가 그의 부친 험려(闔閭)를 이곳에 묻었다고 전해진다. 장례를 지낸지 3일째 되던 날 백호 한 마리가 무덤 앞에 웅크려 앉아 있었기 때문에 호구(虎丘)라 불리게 되었다. 이곳의 수목은 하늘 높이 치솟아 있으며 풍경이 아름답다. 이곳은 호구 18경으로 유명한데 경치마다 사람을 매료하는 역사적 전설과 신화가 있다. 호구탑(虎丘塔)은 천년을 넘게 서 있었다. 높이 47.5m, 8각7층이며, 호문(壺門), 두공(斗拱), 천화조정(天花藻井) 등의 회화는 색채가 조화롭고 도안은 수려하다. 탑은 400여 년 전부터 기울기 시작해 기울어진 탑으로 유명하여 쑤저우(蘇州)의 상징이 되었다.

☞망사원(網師園) : 봉문(葑門)안 퀴자터우 거리(關家斗巷)에 있으며, 후문은 스텐 가(十全街)로 통한다. 전체 원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약 8무(畝:1畝는 약666.7 m<sup>2</sup>에 해당함) 남짓으로 졸정원(拙政園)의 6분의1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작은 것속에서 큰 것을 본다는 소중견대(小中見大)기법을 실천하였으며 배치는 엄격하고, 주(主)와 부(副)가 확연히 구분되며 변화가 다양하다. 정원 안에 정원이 있고

경치 밖에 경치가 있으며 정교하고 그윽하기 그지없다. 건물이 몰려 있지만 답답한 느낌이 없으며, 산과 못은 작지만 작아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쑤저우(蘇州) 고전 원림 중 이소승다(以少勝多)의 전형이라고 한다.

망사원은 옛 이름은 ‘어은(漁隱)’이라 불렀는데, 청대(清代) 송종원(宋宗元)이 사들여 옛 이름 ‘어은(漁隱)’에다 당시 골목 이름 ‘왕스(王思)’음을 따서 ‘망사원(網師園)’이라 칭했다.<sup>2)</sup>



역주 2) ‘網’은 ‘漁’를 비유한다. ‘어은’은 어부의 단순하고 고독한 삶을 위로하는 장소였다. 송종원이 복원하면서 관료보다는 어부가 되겠다는 의미로 옛 이름 ‘어은’에다 집을 지을 당시 그 곳의 이름은 ‘王思菴’의 음을 따서 망사원이라 지었다.

## 2. 베이징(北京) - 찬란한 황실의 건축

중국인에게 있어서는 베이징(北京)의 명·청(明清)시대 황실건축을 감상하는 것은 단순한 여행길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행인 것이다. 이 건물들을 합쳐 놓으면 천(天)의 의미와 황(皇)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의 철학, 미학, 예술 개념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큰 베이징(北京城) 곳곳에 이 두 글자의 흔적이 배어있는데, 천년의 거센 바람에 속에서도 강하게 역사의 숨결을 발산한다. 각기 다른 여행객에게는 자기만의 여행길이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베이징을 즐길 수 있다. 깊이 있게 베이징의 역사 예술을 음미하며 여행할 수 있는가 하면, 겉으로 보여주는 화려한 모습만 볼 수도 있다.

베이징 전체를 놓고 살펴보면, 중간부분이 고궁으로 인간세상 황제의 거처이다. 그 옆에는 ‘좌조우사(左祖右社)’로서 좌측엔 황실의 종묘가 있고, 우측에는 사직단이 있다. 남쪽에 천단(天壇)이 있고 북쪽에 지단(地壇)이 있다. 가장 북쪽엔 풍류가 담겨있는 원명원(圓明園)과 이화원(頤和園)이 있다. 여기에 오니 황실의 기운은 푸르고 맑은 물에 정화되어 한층 부드러워졌다. 이 곳은 더 이상 황제의 화원이 아니라 인간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다. 그것들은 본래 황실의 화원일 뿐 아니라 황실의 박물관이었다. 1860년의 재난을 겪은 후 각종 보물의 80~90%가 유실되었지만, 그 화원의 찬란함은 감출 수가 없다.

베이징은 찬란하고 웅장하다. 그렇다고 단지 거대한 것만은 아니다. 고궁(故宮) 남북으로 뻗어나간 중추선은 곧게 이어져있고 좌우대칭을 이룬다. 이것은 자금성(紫禁城) 내부를 관통하여, 남으로 영정문(永定門)에 이르고 북으로 고루(鼓樓), 종루(鐘樓)에 이른다. 하나의 축이 온 도시를 관통하는 것은 황제의 권력 하에 지리적, 의식적 일치단결을 나타낸다.

황권의식은 이 옛 도읍의 중심이다. 웅거한 성의 고궁은 말할 것도 없고 외부 성곽과 하천이 반석처럼 안정적이고 성에 보이는 모든 건축물들은 황제의 품에

있다. 천단(天壇) 북부의 기년전(祈年殿) 안으로 들어서면 위로 올라 갈수록 전체적으로 가운데로 모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천단의 외부 처마는 원형으로 층층이 좁아지며 받쳐진 모습으로 강렬하게 솟구치는 생동감뿐 아니라 장중함이 있으며,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밝은 황색에서 그 기세와 패기가 드러난다. 황실의 종묘인 태묘(太廟), 사직단(社稷壇) 그리고 경산(景山)을 보면 그것들은 <주례(周禮)>에 따라 배치되었다. <주례(周禮)·고공기(考工記)>에 따르면 국가를 경영할 때 ‘좌조우사(左祖右社)’의 제도가 있어야 하며, 좌조는 자금성(紫禁城) 좌측 전방에 위치한 황실의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태묘(현 노동인민문화궁)를 말하며, 우사는 자금성(紫禁城) 우측 전방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으로 즉, 사직단(현 중산공원)을 말한다. 진산(鎭山)은 자금성 북쪽에 위치해 성내 중심의 높은 곳 바로 경산(현 경산공원)이다. 이 세 명승고적은 모두 황실 정원 내에 위치하여 자금성과 함께 하고 있으며, 정신에서부터 형태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황실 건축 규격을 조성하였다.

서양의 정치종교관계와 달리 중국의 황실과 천신은 적절히 융화되었다. 도시 건설 초기 신과 황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러한 황실 건축은 때때로 인간의 기법으로 이상향에 대한 갈망을 나타낸다. 천단에 있는 환구(圜丘)의 척도와 구조의 수량에는 숫자 '9'가 집중적으로 반복 사용되었는데 이는 ‘천(天)’을 상징하고 ‘하늘’과의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기년단은 원형과 파란색으로 하늘을 상징하고, 단내의 큰 기둥과 간격은 각각 일년 중 사계절과 24절기, 12달과 하루 12시진과 하늘의 별자리 항성 등을 의미한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과 풍부한 식생은 하늘과 인간이 조화된 ‘천인협화(天人協和)’의 생태환경을 만들었고, 하늘의 법을 지상에 정착시킨다는 ‘상천법지(象天法地)’라 할만하다. 따라서 유네스코에서는 그 심오한 점을 옛 사람들이 ‘천(天)’에 대한 인식과 ‘천인관계(天人關係)’ 그리고 하늘에 대한 염원을 성공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여긴다. ‘천단(天壇)’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전체 배치나 단일 건축물에서나 모두 천지간의 관계를 반영한다. 이 관계는 중국 고대 우주관에서 핵심을 이룬다. 동시에 이러한 건축은 제왕과 문무대신 관계에서 독특한 작용을 구현해 냈다.

베이징의 고건축물 사이를 걷다보면, 아주 먼 옛날에 대한 사색에 잠긴다. 눈으로 보는 것 머리에 떠오르는 것에 대한 사색으로 가득하게 되며, 작은 존재 하나하나도 모두 상징이며, 사소한 하나마다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오늘의 감개는 황실이나 천신과는 거리가 먼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 ☞ 가 볼만한 곳 ☞

☞ 고궁(故宮) : 자금성(紫禁城)이라고도 불린다. 명과 청 양대 왕조의 황궁으로 현재 중국에서 가장 완전한 고건축군이다. 베이징 시(北京市) 중심인 천안문(天安門)광장 북쪽 1km지점, 경산(景山) 남문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동서로 폭 753m, 남북 길이 961m, 면적 72만㎡으로 9000여 채의 방이 있다. 모두 목조건축이며, 황색의 유리기와, 청백색의 좌대, 황금빛과 푸른빛이 찬란한 채색화로 장식했다. 고궁 외부에는 성을 보호하는 해자가 있고, 해자 안에는 성벽이 있다. 성벽 사방에 문이 있는데 남쪽에 오문(午門), 북쪽에 신무문(神武門), 동쪽에 동화문(東華門), 서쪽에 서화문(西華門)이 있다. 고궁은 남북을 잇는 중추선 상에 좌우 대칭을 이루어 자리잡고 있다. 건축학자들은 이것은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건축의 걸작으로 500여 년 전 중국의 건축예술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고궁은 크게 남쪽의 조정의 업무를 처리하는 집무실인 외조(外朝)와 북쪽의 일상 생활공간인 내정(內廷)으로 나뉜다. 외조와 내정의 모든 건축은 중앙선에 배치되어 있으며 동서 대칭으로 질서정연하게 자리잡고 있다.

외조(外朝)는 황제가 정사를 처리하는 곳으로 태화전(太和殿), 중화전(中和殿), 보화전(保和殿) 삼대전이 자리하고 있다. 그 중 태화전은 높고 화려하여 ‘금란전(金鑾殿)’이라고도 부른다. 그 곳은 너비 60.1m, 길이 33.33m, 높이 35.05m으로 황제 등극, 혼례, 책봉, 출정명령 등의 의식을 거행했던 장소이다. 태화전 뒤쪽의 중화전은 황제가 중대한 의식에 나가기 전 휴식을 취하고 알현 받던 곳이다. 가장 북쪽에 위치한 보화전은 황제가 연회를 베풀고 전시를 열던 장소이다.

내정(內廷)은 건청(乾淸), 교태(交泰), 곤녕(坤寧) 세 궁과 동서 양쪽의 동육궁(東六宮), 서육궁(西六宮)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황제와 후궁들이 살았던 장소로 ‘삼궁육원(三宮六院)’이라고도 불린다. 거주지 북쪽에 작고 독특한 어화원(御花園)이 있는데 이곳은 황제 가족이 산책하던 곳이다.

고궁은 그 규모가 웅장하고, 배치가 정연하며, 건축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수 많은 진귀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어 중국의 고대 건축, 문화, 예술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여행 코스는 다음 세 가지 있다.

중앙선 : 오문>태화문>삼대전>건청문>건청궁>교태전>곤녕궁>어화원>신무문

동로 : 동육궁>녕수궁(寧壽宮)>진비정(珍妃井)>어화원

서로 : 서육궁>자녕궁(慈寧宮)>양심전(養心殿)>수방재(漱芳齋)

☞ 이화원(頤和園) : 원래는 청의원(淸漪園)이라 불렸었다. 베이징(北京) 하이디엔구(海澱區) 서쪽 교외에 시 중심에서 12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화원은 현존하는 중국 최대의 원림이다.

이화원은 만수산(萬壽山)과 곤명호(昆明湖) 두 풍경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290ha로, 그 중 호수 면적이 약3/4을 차지한다. 이 고전 원림은 규모가 웅장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원내에 정, 대, 루, 각, 궁전, 사원, 불탑, 정자, 회랑, 제방, 석교, 석방 등 100여개 곳의 풍부한 민족특색을 지닌 고전 건축물 외에 드넓은 곤명호(昆明湖)와 우뚝 솟아 있는 만수산(萬壽山)도 있다.

이화원(頤和園)은 역사적으로 두 차례 심각한 파괴가 있었다. 1860년 영국과 프랑스연합군의 공격으로 전소되었으며, 후에 재건하여 이화원이라 부르게 되었다. 1900년 또 한번 8개국 연합군의 공격으로 파괴되어 1902년 다시 재건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원명원(圓明園) : 원명원은 ‘모든 정원의 으뜸이다 (萬園之園)’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이곳은 청(淸)나라 건륭제(乾隆)때 건축한 것으로 정자, 누각 등이 140

여 곳에 있으며, 총 면적이 350만㎡에 이른다. 육지 건축의 면적은 고궁만큼 크며, 수역 면적은 이화원과 같다.

역사적으로 원명원은 원명(圓明), 장춘(長春), 기춘(綺春 또는 만춘-萬春) 세 정원으로 이루어진다. 세 정원은 담장을 경계로 구분된다. 앞쪽에 만춘원(萬春園)이 있고 원명원(圓明園)과 장춘원(長春園)은 뒤쪽에 나란히 있다. 원명원의 남쪽은 조정의 구역으로 황제가 공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기타 구역에는 40여개의 관광지가 분포하여 있는데, 그 중 많은 명소가 다른 곳의 유명한 원림을 그대로 본 따서 만들었다. 예를 들자면 ‘서호십경(西湖十景)’은 서호(西湖)의 건축 양식 뿐만 아니라 그 이름까지 그대로 사용하였고, 서양식 건축도 볼 수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대수법(大水法)’이다. 이것은 서양식의 분수이며, 황화진미궁(黃花陣迷宮), 서양식 발코니 등도 있어 중국 원림 건축 예술과 기술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원명원(圓明園) 진보관(珍寶館) 안에는 수많은 명인들의 서화, 황실도서관과 전적(典籍), 종정(鐘鼎)과 옥기, 금은보석 등 진귀한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으나, 이 정원중의 정원은 방화로 폐허가 되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화소원명원(火燒圓明園)’<sup>3)</sup>이다. 해방 후, 정부는 이곳의 유적을 후세인들이 추모할 수 있도록 폐허상태로 보존하고 있다.

☞ 태묘(太廟) : 천안문(天安門) 동쪽에 위치하여 명·청(明清) 두 왕조의 조상의 사당이였으며, 현재 베이징 시 노동인민문화궁이다. 태묘는 오래된 측백나무로 유명하다. 정원에는 이미 수 백 년 된 고목들이 많으며, 중국 국가중요문화재(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이다.

태묘는 명(明)대 영락제 18년(永樂18年)에 세워졌으며, 가정(嘉靖), 만력(萬曆) 그리고 청(淸) 순치(順治) 연간에 여러 차례 보수하였다. 면적은 13.96㎡이며, 사방에 3중 담장이 있다. 주요 건축은 대전과 결채로 되어 있어, 앞쪽에는 리여우리관문(琉璃磚門)과 지문(戟門)이 있고 양문 사이에는 돌다리가 7개 있다. 전당

역주 3) 1856년 애로호 사건(제2차 아편전쟁)으로 청(淸)황족이 거주하던 원명원은 영프연합군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고 베이징이 점령되었다. 이때 원명원이 파괴된 사건을 일컬어 ‘화소원명원(火燒圓明園)’이라 한다.



은 모두 황금색 유리 기와로 되어있고, 건축은 웅장하고 아름답다. 대전 주위에는 3중 한백옥(漢白玉)의 수미(須彌)식 테라스가 있고, 주위에는 돌난간이 있다. 태묘는 규칙은 목재와 석재 부분이 대체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베이징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된 명대(明代) 건축물 중의 하나이다.

☞ 천단(天壇) : 대지면적은 270만㎡로 규모가 웅장하며 화려하다.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고대 제천행사 건축군이다. 베이징(北京) 천안문(天安門)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명(明)나라 성조(成祖) 영락(永樂) 18년(서기 1420년)에 완공되었으며, 원 명칭은 ‘천지단(天地壇)’으로 명·청(明清) 두 왕조의 황제들이 천지의 신에게 제를 지냈던 곳이다. 명(明)나라 가정(嘉靖) 9년(서기 1530년) 베이징 북쪽 교외에 별도로 지신에게 제를 지내는 지단을 세우고, 이곳은 하늘에 제를 지내고 풍작을 기원하는 장소가 되어 ‘천단(天壇)’으로 불리게 되었다. 천단의 건축 설계는 매우 정교하며, ‘환구(圜丘)’와 ‘기곡(祈谷)’ 두 단이 원내에 같이 건설되었다. 환구단(圜丘壇)은 남부에 있으며, 천신에게 기원하던 장소이고, 기곡단(祈谷壇)은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풍작을 기원하던 장소이다. 선인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사각형이라 인식했다. 따라서 천단을 둘러싼 벽 평면 남쪽은 사각형으로 땅의 형상을 상징했고, 북쪽은 원형으로 하늘의 형상을 상징하였다. 이 벽을 천지담이라 불렀다. 천단의 주건축은 대체로 남북을 향한 그 중심선에 놓여 있으며, 각 건축물 중간에 담을 놓아 구분하였고, 길이 360m, 폭 30m의 돌다리로서로 연결되었다.

천단(天壇)의 주건축물은 기년전(祈年殿)으로 매년 황제는 이곳에서 제천행사를 거행하여 풍작을 기원하였다. 기년전(祈年殿)은 원형으로 대전의 구조는 아주 독특하여, 대들보나 도리를 사용하지 않고 처마 끝은 기둥과 서까래로 받쳤다. 중앙의 4기둥은 높이 19.2m로, 1년 중 4계절을 의미하며, 바깥쪽의 두 줄의 각 12기둥은 각각 12개월과 12시진을 의미한다. 24개 기둥을 합하면 1년의 24절기를 상징한다.

☞ 지단(地壇) : 베이징 시(北京) 안평먼(安定) 와이따지에(外大街) 동쪽에 위치해 있고, 강을 사이에 두고 옹화궁(雍和宮)과 서로 마주하고 있다. 아늑하며, 장엄하

고 엄숙한 황실의 단묘원림(壇廟園林)이다. 지단은 방택단(方澤壇)이라고도 하며, 빠이타이(拜臺)라고도 한다. 명대(明代) 가정 9년(嘉靖9年)에 건설되어 명·청(明清) 두 왕조의 황제들이 제를 올렸던 장소이다. 이 웅대하고 드넓은 제지단(祭地壇)은 국내외에서 첫 번째로 손꼽힌다. 서문의 아치는 웅장하고 장관을 이루는데 청대(清代) 건륭제(乾隆) 때의 건축양식에 따라 재건되었으며, 건설 규모가 베이징 시 아치의 최대 규모이다. 녹색의 유리기와에 단봉도(單鳳圖), 쌍봉도(雙鳳圖)와 모란도(牡丹圖)가 그려져 있으며, 정면 중앙에는 ‘지단(地壇)’ 두 자가 쓰여 있고, 뒷면 중심에는 ‘광후가(廣厚街)’ 문구가 있다. 이곳은 지단공원(地壇公園)의 주요 관광 명소이다.



### 3. 따리(大理) - 창산, 얼하이, 고성 그리고 연못

☞ 지리개황 : 따리(大理)는 윈난 성(雲南城) 중부 서편에 위치하며, 총면적 29,000m<sup>2</sup>, 산천이 빼어나고 아름다우며 생활의 정취가 풍요롭기로 유명하다.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자들은 이곳에 잠시 머물면 떠날 줄 모른다. 이곳은 영화 <다섯 송이 금화(五朵金花)>의 고향이기도 하다.

☞ 역사개황 : 주 정부 소재지 따리 시(大理市)는 덴미엔 고속도로(滇緬公路), 덴짱 고속도로(滇藏公路)가 만나는 곳이고 윈난(雲南) 서부의 교통 요충지이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의 문화교류, 무역통상의 중요 문호이며, 당대(唐代) 남조국(南詔)과 송대(宋代) 대리국(大理)의 오백년 도읍지로 ‘문헌명방(文獻名邦)’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따리(大理)에는 남조숭성사삼탑(南詔崇聖寺三塔), 검천석보산석굴(劍川石寶山石窟), 빈천불교성지계족산(賓川佛教聖地鷄足山) 그리고 우뚝 솟은 웅장한 창산(蒼山), 아름답고 맑은 얼하이(洱海), 나비가 춤추는 듯한 후디에 천(蝴蝶泉) 등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이다.

‘집집마다 물이 흐르고, 꽃을 가꾼다.’라는 말에서 따리 고성이 아름답고 한가로운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창산(蒼山) 아래 오래된 성벽으로 에워싸인 즐비한 고건축 안은 오고가는 사람들로 들쭉이는 따리성의 분주한 모습이 보이는데 하면 성벽 밖은 평안하고 고요하기만 하다. 좁은 길이 교차되어 있고, 길가에 독특한 스타일의 술집들이 늘어져 있는데 그 술집 창문사이로 세계 각지의 음악과 말소리가 들릴 듯 말 듯 새어나온다.

창산, 얼하이, 삼탑(三塔)의 경치는 생각했던 것 보다 아름답다. 특히 얼하이에 배를 띄워 멀리 창산의 수려한 경치를 바라보고, 함께 배를 탄 바틱을 입은 여자 친구의 모습이 파도에 일렁이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강호에서 유유자적하는 느낌이다.

따리 고성(大理古城)은 명(明)나라 홍무연간(洪武年間)에 건설되었다. 주원장(朱元璋)은 대장 목영(沐英)을 멀리 윈난(雲南)으로 보내 평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황권이 이곳에 대해 중히 여김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또한 더욱 풍부한 한인문화(漢人文化)를 전파하였다. 민족이 한데 어우러지는 지방은 자연히 다른 곳에 비해 더 많은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다. 김용의 무협소설 <녹정기(鹿鼎記)>의 목왕부(沐王府) 또한 이곳에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 ☞ 가 볼만한 곳 ☞

☞ 얼하이(洱海) : 윈난 성(雲南省) 내 담수호로 용수량이 가장 크다. 해발 1,966m, 남북길이 45.5m, 동서 너비 3~9m, 평균 수심 10m, 가장 깊은 곳 22m, 저수량 30억m<sup>3</sup>이다. 얼하이의 면적은 비록 텐즈(滇池)보다 작지만, 저수량은 텐즈보다 커서 텐즈의 2배에 달한다. 얼하이는 수원이 풍부하다. 북으로 미취강(弥苴河)과 미즈강(弥茨河)이 유입되고, 동남으로 보뤄강(波羅江), 위룡강(玉龍江), 평웨이딩(鳳尾阱), 서로 창산(蒼山)의 18개 하천이 있다. 호수는 서쪽을 따라 얼허(洱河)로 흘러 나가 양비강(漾濞江)과 합쳐지고, 란창강(瀾滄江)의 주류를 이루어 마지막으로 인도양으로 흘러간다.

얼하이의 물은 거울처럼 맑고, 수면에는 푸른 물결이 일렁거리, 배를 타고 유람하기 좋다. 화창한 날 창산의 은빛 봉우리가 바다에 비쳐 은색의 창산과 옥색의 얼하이는 서로 아름답게 어우러져 또 하나의 장관을 이룬다. 호수에는 아름다운 세 섬(진쉬다오 金梭島, 위지다오 玉璣島, 이원다오 亦文島), 다섯 개의 호수(타이후 太湖, 련화후 蓮花湖, 싱후 星湖, 셴후 神湖, 주후 潞湖), 아홉 계곡(련화蓮花, 따허 大鶴, 판판 蟠帆, 평이 鳳翼, 뤽스 羅時, 니우자 牛角, 띠취 地昨, 까오레이 高壘, 허주 鶴翥)이 있다. 특히 ‘삼도(三島)’는 얼하이(洱海)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 창산(蒼山) : 원 명칭은 덴창산(點蒼山)이며, 횡단산맥(橫斷山脉)인 운령산(雲嶺

山)에 속해 있다. 북쪽 얼위안현(洱源縣)의 등천(鄧川)에서 시작하여 남쪽 하관시(下關市)의 천생교(天生橋)까지 닿아 있고, 동으로 얼하이(洱海) 호수가에 이르고, 서쪽으로 양비 강(漾濞江)가에 이른다. 남북 길이는 약 42m<sup>2</sup>, 동서 폭 24m<sup>2</sup>, 산세가 웅장하며, 마치 병풍을 가로로 열거해 놓은 듯하다. 창산에는 봉우리가 19개, 하천이 18개 있으며, 설경과 아름다운 구름 풍부한 특산물이 있다.



#### 4. 리장(麗江) - 남은 여생을 이곳에서

☞ 지리개황 : 리장(麗江)지구는 청장고원(靑藏高原) 동남쪽 끝자락 윈난(雲南) 서쪽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리장 고성(麗江古城)은 대연진(大研鎮)이라고도 불리며, 리장 독의 중부에 자리하며, 해발 2,400m에 위치해있다. 이에 이곳은 윈난(雲南), 쓰촨(四川), 티베트의 교통 요충지로 예로부터 상업 활동이 빈번하여 유명한 시장이 생겨나고 중요 도시가 되어 현지인들의 경제가 빠르게 부흥하였다. 이곳은 중국역사문화의 유명한 성들 중 유일하게 성벽이 없는 고성이다. 이는 리장은 목(木)씨가 세습하여 다스렸는데, 성을 축조하면 목(木)자에 틀이 더해져 ‘곤(困)’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 역사개황 : 고성(古城)은 원(元)나라 초기에 건설되기 시작하여, 남송(南宋)시기 기본적 규모를 갖추고 이미 8~9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서기 1253년 쿠빌라이(원세조)가 대리국(大理國)을 정벌할 때 이곳에 주둔했다. 이를 계기로 청(淸)나라 초기까지 약 500년 동안 리장(麗江) 지역은 중앙 왕조의 관할 하에 나시족(納西族) 목(木)씨 선조와 목씨 토사(土司-1382년 설립)가 세습 통치하였다. 명조(明朝)부터 리장고성(麗江古城)을 ‘대연상(大研廂)’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고성이 리장 독 중심에 있고 사면이 청산에 둘러싸여 있어, 녹색의 들판 사이를 푸른물이 굽이굽이 돌아 흐르는데 그 형상이 벽옥의 벼루와 같다하여 그렇게 부른 것이다. 고성은 명조(明朝) 리장(麗江) 군민부(軍民府)와 청조(淸朝) 리장부(麗江府) 관아가 있던 곳으로, 민국(民國)이후 대연진(大研鎮)으로 불렸다. 리장고성(麗江古城)은 나시문화(納西文化)의 정수이며 원대(元代) 이후 형성된 역사적 풍모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어 국무원이 국가급역사문화도시(國家級歷史文化名城)로 지정하였다.

☞ 기후특징 : 리장고원(麗江高原)은 고원형 서남 계절풍 기후로 기온이 낮은 편이며, 주야로 일교차가 커 ‘하루에 사계절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봄·여름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인구, 민족, 면적 : 리장(麗江)은 중국 유일의 나시족 자치현(納西族自治縣)으로 현재 인구 26,000명이다. 그 중 66.7%가 나시족(納西族)이고, 주민의 30%는 민족 전통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다. 면적은 3.8m<sup>2</sup>이다.

☞행정구역 : 구청(古城)구, 위룽나시족자치현(玉龍納西族自治縣), 닝량이족 자치현(寧蒗彝族自治縣), 용성 현(永勝縣), 화핑 현(華坪縣)이 있다.

☞특산품 : 이곳은 풍부한 토지, 생물, 광물 자원 외에 거대한 관광자원과 수력 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경내에는 북반구 최남단의 현대 빙하<sup>4)</sup>가 있어 중국의 ‘빙하 박물관’이라 불리며 ‘식물왕국’인 위룽쉐산(玉龍雪山)이 있고, ‘형두안산(橫斷山)식물유전자은행’이라 불리는 신주(新主)천연식물원과 ‘진달래왕국’인 라오쥘산(老君山)이 있다. 하루에 세 번 일출을 볼 수 있다는 ‘여명단하(黎明丹霞)’의 적벽풍광이 있으며 ‘지구상 제일의 수목’이라는 찬사를 듣는 수많은 동백나무가 있다.

또한 이곳엔 풍부한 공예품이 있다. 예를 들면 지산(積善)거리 부농족(布農)의 작은집, 나시족(納西族)의 목조품, 밀사(密士)거리의 청시예원(清溪藝苑), 동파(東巴) 목판 등이 있다.

☞토속음식 : 리장바바(麗江粑粑:일종의 호떡), 미엔궤판(面果飯:시루떡과 비슷한 것), 지완떠우편(鷄豌豆粉), 쉐요우차(酥油茶:우유나 양젖을 끓여 만든 지방 기름을 넣은 차), 쌀국수(米線)

## 100인 100색의 리장(麗江)

### 100인 100색의 리장(麗江)

역주 4) 현대 빙하는 아주 높은 산이나 남극 북극 지역에만 생긴다.

이 일상적인 표현들은 각종 여행책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제야 그 표현이 가장 적합한 곳이 리장 임을 알았다. 일상적이라면 일상적이 수도 있지만 마치 신년의 등과 ‘희’자처럼 그 안에 가득한 기쁨과 만족스러움은 다른 사물이나 다른 언어로 대신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리장에서라면 아무리 탐욕스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작은 다리, 흐르는 물, 인가는 모두 있지만 애처로운 사람은 없다. 사방팔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뇌를 가지고 이 변경의 조용하고 아득한 곳으로 와 인간이 사는 모습으로 바뀌 놓았다.

새벽이나 황혼 무렵이나 다리 위, 버드나무 아래, 꽃밭 사이, 누각 그 어느 곳에도 사람이 있다. 모두 여정이 바쁜 사람들이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곳에 이르면 목적지가 없어져 버린 듯 여정은 이곳에서 무한정 연기되고 언제 돌아갈지 돌아갈 시간을 잊게 된다. 이곳은 상처를 치료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다리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곳 약 2m<sup>2</sup> 성내에는 크고 작은 다리 76개가 조밀하게 깔려있다. 사람들의 왕래는 곧 물의 관계로 변한다. 어떤 다리는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데 성내의 가장 큰 강이 고성을 둘로 나누고 있어, 동서로 두 구역을 연결하여 다리를 건너야만 교류가 가능하다. 수많은 다리 중 대석교(大石橋)는 오랫동안 묵묵히 그곳에 서서 몇 백 년 고성객상과 여행자의 왕래와 교류를 도맡아왔다. 상인들은 늘 바빠 다니기 때문에 이 다리의 또 다른 아름다운 이름 잉취교(映雪橋)를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 그 다리 아래 위룡취산(玉龍雪山)이 비쳐진다 해서 이렇게 부른다. 가장 사람냄새가 나는 곳은 오리알을 파는 다리와 지원떠우를 파는 다리이다. 이들은 서강(西江)위에 남쪽과 북쪽으로 놓여있으며, 리장(麗江)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리알과 지원떠우편을 판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스광제(四方街)를 끼고 있어 이곳은 재래시장의 분위기가 가득하다. 고성안의 개울은 대부분 폭이 겨우 2~3m이며 물이 얁다. 강의 유수는 그칠 줄 모르고 주



야로 세차게 흐르며, ‘성은 물에 의존하고, 물은 성을 따라 흐른다.’ 현지 가이드는 여행객에게 만일 고성에서 길을 잃었다 해도 조급해 하지 말고 물의 흐르는 방향으로 곧바로 걸으면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개울은 고성 생명의 원천으로, 이곳 주민들은 빨래하고 밥을 짓는 등 모든 생활에 사용한다.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한 것은 옛 촌락에 있어서는 큰 시도였다. 옥천하(玉泉河)의 수류가 옥룡교(玉龍橋)에 이르면 동·서·중앙 세 줄기로 갈라져 성으로 들어와 성을 순환하고 흐르는 도시 수계를 형성하였고, 집집마다 문 앞까지 수류가 닿게 되었다. 시 중심의 스퀘어(四方街) 사이는 튀어나오고, 사방으로 움푹 들어가 있어, 댐을 닫을 때 범람하는 물이 대로로 흘러 바닥에 깔려 있는 오색의 돌을 깨끗이 씻어 낸다. 사람들은 또 ‘일담일정삼탕수(一潭一井三塘水)<sup>5)</sup>의 용수방법을 고안해냈는데, 첫 번째 웅덩이 물은 식수로 사용하고, 두 번째 물은 야채를 씻고, 세 번째 물은 빨래를 하는 것으로 물의 깨끗한 정도에 따라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사용하였다. 여인이 그 집의 가장역할을 하고, 남자는 한거하는 것은 고성 특유의 풍습으로 이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이다. 러시아인 Peter Goullart는 일찍이 <잊혀진 왕국>이란 책에서 나시의 부녀자는 ‘튼튼하고 가슴이 넓다. 팔힘이 세다. 자신감이 있고, 과단성 있으며, 용감한 나시족(納西族) 여인은 집안을 책임지며, 가정을 지탱해주는 대들보이다. 판진메이(潘金妹-나시여인)를 얻는 것은 인생보험을 드는 것이며, 여생을 한가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얼굴색이 좋고, 호리호리한 나시여인들은 등짐을 메고, 노점을 열고, 집 안팎으로 바쁘다. 성실하게 집안일을 처리하고, 베를 짜고, 채소를 팔고 차를 운전하고 집안일을 하는 등 집안의 가장이다. 중년의 부녀자들은 전통의상을 많이 입는다. 그녀들이 가장 즐겨 입는 것은 양가죽 망토로 양쪽 어깨에 원포권(圓布圈:동그란 천)이 꿰매져 있다. 가는 실로 수를 놓아 도안을 완성하고 사방에 다시 7개의 작은 원포권(圓布圈)을 꿰맸다. 나시(納西) 여인은 이 망토를 아주 좋아하지만 ‘피성대월(披星戴月:별을 이고 달을 진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라는 망토 이름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이 그녀들의 바쁜 일생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역주 5) 웅덩이가 계단식으로 세 단계로 파여 있으며 물이 흐르도록 된 구조

## ❁ 가 볼만한 곳 ❁

### ❁ 리장고성(麗江古城) 볼거리

(1) 높은 곳에 올라 아름다운 고성을 볼 수 있다. 고성은 절묘하게 지형을 이용하였다. 서쪽에 스즈산(獅子山)이 있고, 북쪽에 상산(象山), 진홍산(金虹山)이 있으며, 서북쪽을 등지고 동남쪽을 향해있어 설산의 한기를 피하고 동남쪽의 따뜻한 바람을 접한다. 바람을 피하고 기운을 모아주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2) 강에 접해 있어 고성의 물의 상황을 볼 수 있다.

(3) 정원에 들어서면, 고성 건축을 볼 수 있다.

(4) 시내 다리를 건너면 고성의 구조를 구경할 수 있다. 고성의 구조는 자유롭고 활용적이며, 획일화되지 않았다. 민가, 재래시장, 길, 수계조직(水係組織)이 합리적으로 배치가 잘 되어있다. 게다가 석교, 목교, 꽃, 새, 벌레, 물고기, 각종 문예특기, 민속들이 무한한 의취(意趣)를 내뿜어 고성은 독특한 매력을 형성한다.

❁ 위룡쉐산(玉龍雪山) : 위룡쉐산과 기타 소재의 위룡쉐산 풍경구는 리장(麗江) 자연경관의 중점지역이다.

위룡쉐산은 운령산맥(雲嶺山脉) 중 최고의 산지로 북반구 최남단에 위치하며 현대빙하가 분포되어 있는 가장 높은 산이다. 13봉을 거느리고 있으며 평균 해발 5,000m 이상이다. 주봉우리인 산즈떠우(扇子陡)는 가파르고 해발 5596m로 윈난(雲南)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다. 위룡쉐산의 남북 길이는 35km, 동서 폭 20km로 산이 남북으로 길게 늘어 서 있다. 산 정상에는 일년내내 눈이 쌓이고, 산 중턱은 늘 안개에 싸여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한 마리 옥룡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과 흡사하다 해서 위룡쉐산(玉龍雪山)이라 불린다.

위룡쉐산은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가장 높은 산으로 현대해양성빙하가 분포해 있다. 지구역사상 리장 빙하기와 따리(大理) 빙하기의 직접적 영향을 겪어 고빙하 유적이 아주 많아, 빙하연구상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산기슭에서 정상까지 아열대, 온대, 한대까지 수직 자연 경관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처럼 완전한 식생대는 일반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과학연구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 루구후(瀘沽湖) : 루구후는 윈난(雲南) 영랑 현(寧蒗縣)과 스촨(四川) 염원 현(鹽源縣) 경계에 위치해 있다. 윈난 호수 중 등강무선호(澄江鎬撫湖)에 버금가는 두 번째 호수이다. 이곳은 단층이 함몰되면서 형성된 고원 담수호로 모수어(摩梭語)로 ‘루(瀘)’는 산골짜기 ‘구(沽)’는 안이란 뜻으로 산골짜기 호수란 뜻을 가지고 있다. 자연환경과괴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호수는 맑고 깨끗해 투명도가 최대 11.5m에 이른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1년 중 3개월 눈이 쌓이지만 호수는 연중 얼지 않는다. 물은 맑고 투명하며, 물맛이 약간 단맛이 들며, 현재 중국의 오염도가 적은 고원 심수호(深水湖) 중의 하나이며, 호수 풍광이 수려하다.

인문경관면에서 루구후(瀘沽湖)는 ‘동방여인국’이라 불린다. 호숫가에 거주하는 모수인(摩梭人)은 지금까지 모계사회(母係社會)를 유지해 오고 있다. 남자는 장가를 가지 않고 여자는 시집을 가지 않는다. 남녀사이에 혼인관계의 주혼(走婚)<sup>6)</sup> 관습이 이루어져 인류의 사회 형태와 모계사회 결혼 관습을 연구하는 생생한 연구 소재가 되었다. 이곳 촌락민의 가옥은 대부분이 ‘목재를 얹혀 우물을 짜듯이 쌓아 올린 구조법(別木爲屋)’의 정간식(井干式) 건축으로 독특한 모수민의 주거 경관을 형성하였다.

역주 6) 모수족은 주혼(走婚)이라하는 결혼 풍습이 있는데 이는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 않고 남자는 밤이 되면 좋아하는 여자집에 가서 잠을 자고 날이 밝으면 자기집에 돌아온다.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가 기른다.

## 5. 텡총(騰衝) - 화산, 폭포, 온천

☞지리개황 : 유명한 유서 깊은 역사문화의 도시이다. 윈난 성(雲南省) 서부 까오리공산(高黎貢山) 서쪽 산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서부로 미얀마와 맞닿아 있다. 따잉 강(大盈江)의 지류인 디에쉐 강(疊水河)이 이 도시를 감싸고 흐른다. 역사적으로 옛 서남 실크로드의 요충지이다.

☞역사개황 : 텡총(騰衝)은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서한(西漢)시대에는 덴위에(滇越)라 하였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어느 시대나 군대를 파견하여 주둔시켰다. 서기 1448년(명나라 정통13년-明正統13年)에 돌로 텡총성을 축조했으며 변방의 제1성이라 하였다. 송·원(宋元)나라 이후 텡총은 보석의 집산지였으며, 최초로 비취가공이 시작되었다. 청대에 이르러 비취가공, 판매업이 성행하였고, 현재 비취 교역이 아주 활발하다.

☞기후특징 : 열대 계절풍 기후에 속하며 연평균 기온이 14.8℃이다.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덥지 않아 일년 내내 여행이 가능하다.

인구는 53만 명이고, 한족(漢族), 다이족(傣族), 바이족(白族), 후이족(回族), 리수족(傈僳族), 아창족(阿昌族), 와족(佤族) 등 10여 민족이 살고 있으며, 민족의 풍속이 풍부하고 다채로와 ‘교포들의 고향(僑鄉)’또는 ‘문화의 나라’로 유명하다.

☞면적 : 총 면적은 5,693km<sup>2</sup>이다.

☞특색 : ‘천혜의 식물원’ 또는 ‘생물종유전자은행’이라 불리며, 중국에서 화산군과 지열 온천이 가장 많이 밀집된 곳이다.

텡총(騰衝)은 이야기와 화산의 지방이다. 예를 들면, 항전 때 스틸웰로드<sup>7)</sup>가

---

역주 7) 미얀마와 중국을 잇는 미얀마 로드와 인도 북동부를 연결하는 길이 769km의 고속도로로서 제2차 세계 대전 중 전략상의 군사도로로 사용됨.

이곳을 통과했으며, 영화<홍하곡(紅河谷)>은 이 곳 텡총에서 촬영했다. 영화 속에서 배우가 대포 앞에 서서 텡총의 먼 산을 마주하고 목을 놓아 노래 부른 이곳은 남명(南明)의 영력제(永曆帝)가 패주한 지역이며, 근대에는 세계를 놀라게 했던 영국침략에 저항한 ‘마가리살해사건(Margary Affair)’<sup>8)</sup>이 발생한 지역이다.

그 유명한 텡총 무장 봉기는 신해혁명(辛亥革命) 원난(雲南) 3대 무장 봉기의 선두였으며, 이로 인해 원난 최초의 자산계급 혁명 정권이 수립되었다. 또한 북양정부(北洋政府) 국무총리 이근원(李根源)과 명망 높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애사기(艾思奇)의 고향이기도 하다.

가장 치열했던 것은 바로 텡총 전투이다. 1942년 일본이 중국 서남(西南)을 점령하였고, 중국과 미얀마간 통하는 육로 교통로를 뚫기 위해, 1944년 중국 원정군은 원난 서부 전쟁을 시작하였다. 그 중 텡총 수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 원난 항전 중에서 가장 격렬했다. 텡총 성(騰衝城)은 화산암석으로 쌓아올린 성으로 원난 서부(雲南西部)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다.

44일간의 전쟁을 겪고 나서야 중국군과 연합군은 텡총을 수복하였다. 하지만 텡총 고성은 이미 폐허가 됐고, 현재의 텡총은 전쟁 후 재건한 것이다. 오늘날 작은 언덕에는 높은 기념탑이 우뚝 서있다. 탑의 기단에는 장개석(蔣中正)이 쓴 ‘민족영웅(民族英雄)’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이와 대조를 이루는 것은 순국열사묘원(國殤墓園) 정문과 강당 사이의 ‘왜총(倭塚)’이다.

옛 이야기는 물처럼 사람을 몹서리치게 하고 화산, 열해(熱海), 온천은 술처럼 사람을 따뜻하게 한다.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텡총은 오래전부터 지각운동이 활발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화산, 온천, 기천(氣泉) 등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화학성분에 따라 이곳 온천, 기천을 탄산천, 유황천, 황산천으로 나눌 수 있다. 텡총현(騰衝縣)의 화산지열 온천풍경구는 텡총 현 시내에서 12km 지점 떨어져 있고, 황과칭(黃瓜箐)과 짜오탕 허(澡塘河)라고 하는 두 골짜기를 포함한다. ‘따군궤(大滾鍋)’지역이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을 뿐 다른 경관들은 모두 골짜기와 험한 산중턱에 있다. 황과칭(黃瓜箐)은 나무가 우거진 좁고 긴 골짜기

역주 8) 영국 영사관의 서기 A.R 마가리가 원난(雲南)으로 가던 중 살해된 사건.

로, 유황향이 짙은 열기천이 돌을 뚫고 끊임없이 분출한다. 이곳의 증기탕에는 토륨원소가 변해 만들어 진 다량의 라돈가스와 기타 다양한 화학물질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그것들을 각종 약초와 배합하면 호흡기, 심혈관 질환 등 2~30여종 증상을 치료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매년 겨울·봄 농한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요양 오는데, ‘올 때는 말을 타거나, 부축 받거나, 지팡이를 짚고 오는데, 갈 때는 두발로 가슴을 펴고, 씩씩하게 걷는다.’라는 말도 있다. 리하이석(熱海石)에서 다시 10여분 정도 올라가면 거대한 가마솥 모양의 ‘따군궤(大滾鍋)’라고 불리는 연못에 도착한다. 이곳은 직경이 약 3m 남짓의 그릇 모양의 깊은 못에서 물이 끓고 연기가 피어오른다. 유황향을 피우며 부글부글 끓는 물이 ‘씩씩’ 소리를 내며, 분출하는 안개기둥은 3m 높이까지 올라가 초봄 하늘에 뜨거운 안개를 만드는데 이는 몇 백 미터 밖에서도 볼 수 있다. 현재, 연못 주변의 완만한 비탈에 간이 욕실 몇 채를 지어 뜨거운 물을 끌어와, 차가운 샘물과 섞어 여행객이 무료로 목욕할 수 있게 하였다. 화산분출이 많은 재해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점도 많았다. 현지인들은 샘터 주변의 기공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쪼을 깔고 고구마, 감자를 찌는데 약 10여분정도면 푹 익는다. ‘리하이따군궤(熱海大滾鍋)’근처에서 현지인들이 계란 다섯 개를 지푸라기로 묶은 후, 삼베로 덮어 짧은 시간 안에 찌내는 진기한 광경을 볼 수 있다. 이곳은 지금까지도 ‘원난 18괴(雲南十八怪 - 원난의 18가지 신기한 풍속)’중의 하나인 ‘계란을 묶음 판매’를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이다.

### ☞ 가 볼만한 곳 ☞

☞ 텡충화산열해(騰衝火山熱海) : 텡충 현(騰衝縣) 시내에서 서남방향 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9km<sup>2</sup> 이며, 원명은 ‘유황탕(硫磺塘)’이다. 텡충은 12개 풍경지 중 하나로 ‘일창열해(一漲熱海)’라고 한다. 이 9km<sup>2</sup>의 구역 내에 비교적 큰 기천과 온천군이 모두 80여 곳 있다. 그 중 10여개의 온천군의 수온은 90℃ 이상이며, 이러한 온천군의 광경은 장관을 이루며 국내외에서 보기 드문 곳이다. 비교적 독특한 관광 명소로는 짜오탕 허폭포(澡塘河瀑布), 하마취 분수(蝦

蟆嘴噴泉), 메이늬 연못(美女池), 전주 천(珍珠泉), 꾸밍 천(鼓鳴泉) 등 10여 곳이 있다. 그 중 가장 전형적인 곳은 따군궤(大滾鍋)이다. 그 곳의 직경은 3m남짓으로, 수심 1.5m, 수온은 97℃에 달하며, 밤낮으로 물이 용솟음치고 들끓어 사계절 내내 열기와 김이 오른다. 세계에 온천이 있는 곳은 많다. 하지만 텡총러하이(騰衝熱海)처럼 면적이 넓고, 샘구멍이 많으며, 치료효과가 탁월한 곳은 정말 보기 드물다.

☞ 텡총 화산군(騰衝火山群) : 텡총 화산군은 중국 4대 화산군 중 하나이며, 모두 97개의 신생대 화산무리가 있다. 전체 화산군의 면적은 221.36km<sup>2</sup>이다. 특수한 지질 구조로 열개 산중에 아홉은 봉우리가 없다는 ‘십산구무두(十山九無頭)’의 기이한 화산 지형을 형성하였고, 유형이 다양하고 보존이 잘 되어있다. 그 규모와 보존성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나다. 과학적 탐사 가치가 높으며 관광 가치가 있어 ‘화산지질 박물관’이라 불린다. 텡총 현(騰衝縣)은 라이평산(來鳳山) 화산이 분출된 용암위에 위치하며, 텡총 시 북쪽 10km지점의 다잉산(打鷹山)은 ‘화산의 으뜸’이다. 텡총 화산 국가공원은 화산의 대표적인 따콩산(大空山), 샤오콩산(小空山), 헤이콩산(黑空山)을 중심으로 모든 화산군과 화산 용암 지모와 룡 강(龍江) 협곡의 화산 주상절리(柱狀節理)를 포함한다.

☞ 디에쉐 허폭포(疊水河瀑布) : 텡총(騰衝) 시내 서쪽 1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사방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세차게 흐르는 따잉 강(大盈江) 물줄기가 이곳을 지나, 30여 미터 높은 바위에서 떨어진다. 물줄기가 마치 돌로 꺾이는 듯해 ‘디에쉐 허폭포(疊水河瀑布)’라 한다. 디에쉐 허폭포 한쪽의 작은 산에는 명(明)나라 때 지어진 오래된 룡광타이(龍光臺)라는 절이 있다. 후에 국경을 수비하던 유명한 등자룡(鄧子龍)장군이 다시 보수하여 이곳에서 폭포의 아름다운 장관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 귀상무위엔(國殤墓園) : 텡총에서 가장 가볼만한 곳 중의 하나이다. 항일전쟁(抗日戰爭)기간에 텡총 수복 전투에서 전사한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중국에서 가장 잘 보존되고, 가장 큰 중화민국의 항일 전사자 기념묘이다. 귀상

무위엔은 텅총 시 서남쪽 1km 밖의 작은 언덕에 있으며, 1945년 7월 7일에 준공 되어, 8,000여명의 순국 중국 군인이 안장되었다.





## 6. 카슈가르(喀什) - 이국적 문화와의 만남

☞지리개황 : 중국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국경 도시 카슈가르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남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동으로는 타클라마칸 사막, 남으로는 쿤룬 산맥(昆仑山脉), 서로는 파미르 고원과 인접해 있고,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교역의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루무치와의 거리는 1,473km, 평균 해발 고도는 1298.5m, 지형은 북고남저(北高南低)의 형태이다.

☞문화 : 위구르어 카슈가르는, 옥돌의 도시라는 뜻이다. 카슈가르는 과거 실크로드 교역의 요지로, 경제·문화가 매우 발달했다. 역사에서 실크로드는 동에서 서로 타림 분지에 진입하였고, 서역남로와 서역북로로 나뉘어 졌다. 타클라마칸 사막을 돌아, 모두 카슈가르에 집결하고, 파미르 고원을 넘어 서아시아, 유럽 등으로 통했다. 특수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번갈아 가며 침투한 중요 지역으로, 과거 동서양 문화의 집결지로서, 전기적인 색채가 짙다.

☞역사개황 : 일찍이 기원전 2C 장건(張騫)의 서역 원정 당시, 서역 36개 국가 중 하나로, ‘소륵국(疏勒國)’이라 불렸다. 한조(漢朝)에 서역도호부(西域都護府)가 설치되고, 소륵국은 서한(西漢)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당조(唐朝) 역시 이 곳에 소륵도독부를 설치하였는데 당시 유명한 ‘안서사진(安西四鎮)’ 중의 하나가 되었다.

☞면적 : 11개의 현과 1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162,000km<sup>2</sup> 이다.

☞인구 : 도시 인구는 193,000명이고, 전 지역의 인구는 3,144,000여 명으로, 그 중 90%가 위구르인이다.

☞ 기후 : 카슈가르는 온대 대륙성 기후에 속한다. 지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후 차이가 크다. 카슈가르 시는 평원 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다. 최고 기온은 40.1℃에 이른다. 여행 최적기는 8, 9월로, 이 시기에는 매일 좋은 날씨를 만끽하고 잘 익은 과일을 맛볼 수 있다. 또한 로즈절(肉孜節 육자절:회교력 9월 말)과 쿠르반절(古爾邦節고이방절:회교력 12월 10일) 기간 동안 카슈가르를 방문하면, 성대한 무슬림 예배 의식을 볼 수 있다.

☞ 특산품 : 카슈가르는 오래 전부터 ‘과일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1년 사계절 신선한 과일과 말린 과일이 시장에 끊이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과일 향기로 가득하다. 석류, 포도, 무화과, 아몬드, 살구, 오디, 백도, 배, 피스타치오, 호두, 산자 열매, 가스(伽師)참외 등이 유명하다.

카슈가르로 들어서면, 강렬한 정취에 매료된다. 건축물과 사람들의 복장 등, 카슈가르 곳곳에는 순수한 위구르의 특색과 이슬람 스타일을 가득 느낄 수 있다. 카슈가르 시는 위구르 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래된 도시로, 민족적 특색이 농후하여 전 신장지구를 통틀어 가장 대표적이며 전형적인 곳이다. 위구르 족은 이슬람교를 신봉하여 복식, 음식, 예절, 혼례, 상례 등이 모두 종교적 영향을 받는다.

먼저 복식을 살펴보자. 위구르 족의 복식은 아름답고 다양하며, 독특한 분위기를 띤다. 남자들은 대부분 깃을 높히고 옷섶을 오른쪽으로 여민, 단추가 없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헝반(두루마기)을 셔츠 위에 입는다. 허리에는 긴 사각형의 주머니를 매, 그 곳에 자잘한 소지품을 담아 편리하게 사용한다. 여자들은 깃이 달리고 옷섶이 없는, 선명한 색의 머리부터 쓰는 치마를 즐겨 입는다. 남녀노소 모두 수가 정교하게 놓인 전통 4각 모자를 즐겨 쓰며, 가족 장화를 신는다. 가끔 장화에 덧신을 덧붙여 신기도 한다. 여자들은 귀걸이와 팔찌,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를 착용한다.

음식을 살펴보면, 위구르인들의 주식은 밀가루 이다. 일상 식품에는 구운 낭

(饜:빵의 일종)과 라면, 조반(양고기를 섞은 육반), 포자만두, 탕면, 카스 전통 물만두 등이 있고, 소고기를 좋아하고, 말, 낙타, 닭, 오리, 생선도 즐겨 먹는다. 또한 우유차, 홍차, 술을 즐겨 마신다. 과일은 위구르 족 생활의 필수품이다.

위구르인들의 집은 보통 흙과 나무로 지은 것으로, 사람 키 높이 정도의 낮은 사각형 단층집이 주를 이룬다. 천장에 창문이 있고, 지붕에 빨래를 널거나, 바람을 쐬 수 있다. 위구르인들은 모여 사는 것을 좋아하고, 마을 안에 수로가 종횡으로 놓여 있고, 많은 과일나무가 그들을 만든다. 주택에 마다 정원이 있고, 실내에 아궁이를 만들며, 벽에는 수를 놓은 용단을 걸어둔다. 또한 크기가 다른 벽장에 다양한 무늬의 도안을 장식한다.

위구르인은 친절하고 손님을 초대하는 것을 좋아하며 예의를 지키는 민족이다. 하지만 금기 역시 매우 엄격하다. 음식에 있어서 돼지고기를 금하며, 물건은 받거나 차(茶)를 마시고 권할 때, 반드시 두 손을 사용해야 하며 한 손을 사용해선 안 된다. 주인의 허락이 없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고, 더러운 물질을 묘지와 이슬람 사원에 반입하는 것을 금한다. 위구르인의 집을 방문하면 식사전후에 손을 씻는데, 세 번 이내로 제한하며, 씻은 후에 수건에 손을 닦고, 아무렇게나 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낭을 먹을 때는 손으로 쪼개서 먹어야 하며, 통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식사 중 이야기를 할 때, 그릇에 있는 음식을 아무렇게 갖고 와서는 안 되고, 음식을 요리하는 곳에 가서도 안 되며, 음식물을 흘려서도 안 된다. 그릇에 있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을 때는, 집었던 음식을 다시 그릇에 뉘어서는 안 된다. 식사가 끝나면, 주인이 식기구들을 정리한 후에야 자리를 뜰 수 있다. 연장자가 기도문을 읽을 때 에는 두리번거리거나 일어서서는 안 된다.

위구르인의 가정은 규모가 작으며, 가족 구성원들은 3대 이내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다. 자식이 한 명일 때는 같이 거주하고, 다자녀 가정인 경우, 자식들은 혼인하면 바로 분가한다. 부모들은 보통 작은 아들을 곁에 두어 의지하며 노후를 보낸다.

위구르인은 일부일처제이다. 과거 혼인은 대부분 부모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대부분 본인들의 의사로 결정된다. 위구르인의 혼인 과정은, 보통 중매, 약혼, 결혼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결혼날짜는 보통 날씨가 청량하고, 가족이 살이 오르며, 과일이 풍성한 가을을 택한다. 신랑, 신부 양측의 많은 손님이 참석하고, 술을 마시며 가무가 펼쳐진다. 혼례는 보통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다. 종교지도자가 의식을 진행하며, 코란을 읽고, 마른 낭(위구르 전통 주식)을 소금물에 적셔 신랑, 신부가 먹도록 하는데 이는 동고동락하며, 백년해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구르인은 토장(土葬)을 하며, 빠르게 진행한다. 매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 보통 오전에 사망하면 점심에 매장하고, 저녁에 사망한 경우, 다음날 아침에 매장한다. 장례의식은 이슬람 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입관 전, 이슬람 성직자가 사망자의 몸을 씻고, 흰 천으로 몸을 감아, 지나즈(吉那孜: 시체를 옮기는 나무 상여)에 옮겨, 친척, 친구들이 칭전스(清真寺-회교사원)까지 이를 매고 운구한다. 이것을 매고 바로 묘지로 향해 묘혈에 묻고, 흙으로 덮어 물고기 등마루 형태(魚脊形)의 무덤을 만든다.

카슈가르의 분위기는 그들의 자연환경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카슈가르의 바자르를 구경하면 카슈가르의 독특한 분위기를 맘껏 누릴 수 있다.

#### ☞ 가 볼만한 곳 ☞

☞아만니사한 기념릉(阿曼尼莎汗 紀念陵) : 신장(新疆) 카슈가르 시내에 위치한 다. 아만니사한(1526~1560)은 아부두러시티의 왕비이자 16세기 걸출한 위구르족 여류시인으로, 위구르 고전음악 <12무카무(十二木卡姆)>를 편찬하였다. 13세에 입궁하여, 34세에 난산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시에 많은 흥미를 갖고, 사회 예술인, 시인, 민간가수 등을 만났다. 위구르인 고전음악을 집대성하여 편찬한 <12무카무>는 민간음악을 과학적이며 체계적이고 보

다 완벽하게 만들었다. <12무카무>는 해외로까지 그 명성이 전해져, 위구르 음악예술의 절세 보물로 불린다. 기념릉의 면적은 1050m<sup>2</sup>로 높이는 22m에 이른다. 능묘와 궁전 그리고 이슬람교 사원이 하나로 되어 있다. 능묘는 높이 2m, 폭 10m이다. 10m 길이의 정사각형 담장에는 무카무 12곡조가 새겨져 있다. 기념릉의 구상은 독특하며, 전형적인 이슬람 건축양식을 보여준다.

☞아파휘자묘(아보추에지아묘 阿帕霍加墓) : 향비묘(香妃墓)라고도 한다. 카슈가르 시에서 북동쪽으로 5km 떨어진 하오한 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슬람 백산파 수장인 아파휘자와 그 가족의 묘지이다. 대지 면적은 30무(亩)로 1640년 전후로 지어진 아파휘자 묘는 전형적인 이슬람 능묘 양식을 띄고 있다. 이곳은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 같은 모습으로, 문루, 작은 예배당과 대 예배당, 교리실, 묘실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능묘의 높고 넓은 주실 안에는 사람 키 반 정도의 높이의 평대가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향비 가족 5대 72명이 안치된 58좌가 있다. 향비의 묘는 평대의 북동쪽 가에 있고, 능묘 왼쪽에는 두 곳의 정교한 이슬람교 예배실이 있다.

향비는 건륭제가 사랑했던 후궁으로 몸에서 특이한 향기가 났다. 베이징(北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그녀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청 건륭제의 명에 따라, 124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시신을 3년에 걸쳐 운구하여 고향에 안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의 고증에 따르면, 그녀의 능묘는 허베이(河北) 칭둥릉(清東陵)으로, 향비묘는 단지 그녀의 의관묘(죽은자의 의복과 유품 등을 묻어둔 무덤)라는 것이다.

☞이드카흐 모스크(아이티가얼 칭진스 艾提尕爾清真寺) : 카슈가르 시가지 중심 해방로에 위치한 이드카흐 모스크는 신장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이며, 신장 이슬람 활동의 중심이기도 하다. 1442년 카스가얼의 통치자인 사커스 미얼자에 의해 지어졌고, 후대에 확장 공사를 하여 현재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아드카흐는 ‘기념일에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의미이다. 대사원은 장엄하고 웅장하며, 예배당, 교리실, 문루, 연못과 기타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6,800 km<sup>2</sup>이다. 이 곳은 종교 활동의 중심지인 동시에 쿠르반절과 로즈절에 군중들이 모

여 가무를 즐기는 장소이기도 하다.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수 천 만 명의 이슬람 신도들이 예배당과 광장을 가득 메우고, 명절 축제의상을 입은 위구르족 청년들이 ‘사만(薩滿)’을 추는 등 사원은 활기로 가득 찬다.

☞ 카슈가르 대 바자르 : 바자르는 위구르어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터를 의미한다. 카슈가르의 대 바자르는 도시 북동쪽의 투만허(吐曼河) 동쪽에 위치한다. 중국 서북지구의 가장 큰 농촌 시장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카슈가르 대 바자르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 이라고 부른다. 카슈가르는 ‘실크로드’의 중심 교역 장소로 2000여 년간 이곳의 상업은 매우 번성하였기 때문에 '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 7. 이리(伊犁) - 끝없는 아름다움

☞지리개황 : ‘신장(新疆)에 오지 않고는 중국이 거대함을 알 수 없으며, 이리(伊犁)에 오지 않고 신장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이리는 중국 서북부 변경, 신장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 카자흐스탄과 접해있다. 삼면이 산으로 에워싸이고, 서부는 광활하다. 이리는 역사상 고대 실크로드 북로의 요충지이며, 오늘날 서역 개방의 문호이다. ‘이북의 강남(塞外江南)’, ‘과일의 고향(瓜果之鄉)’이라 불린다.

☞역사연원 :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리는 신장에서 가장 일찍 중원 중앙 왕조와 전략적 관계를 세운 요충지였다.

이리에 나라를 세운 오손(烏孫) 그리고 이후의 열반(悅般), 서돌궐(西突厥)의 야짱(牙帳:유목민들의 수령이 있는 텐트), 차카타이 한국(汗國)의 수도, 아리바라국, 준가르 한국(汗國)의 수도(首府), 2000년을 내려오는 동안, 수 천 킬로미터에 다다른 이리는 줄곧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유명한 곳이었다. 청대(清代)에 이리는 신장의 도읍지(首府)였다.

☞면적 : 주 총면적 35km<sup>2</sup>, 평원, 산지, 구릉, 사막 등의 지형으로 이루어졌다. 광활하며, 자원이 풍부하다.

인구: 총인구 382만 명, 그 중 카자흐족 98만8천백 명

☞기후 : 건조한 신장에 위치한 이리는 상대적으로 기후특징이 독특한 지역이다. 이곳은 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리고, 날씨는 온난 습윤하다. ‘사막의 따뜻한 섬(瀚海溫島)’이라 불린다. 봄은 바람은 많지만 일조 시간이 길다.

☞민족 : 13개 주요 민족이 살고 있으며, 그중 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행정구역 : 사람들이 말하는 이리는 이리 카자흐 자치주(伊犁哈薩克自治州)로, 이리직할지역, 타칭(塔城), 아러타이(阿勒泰) 세 지구와 쿠이툰 직할시(奎屯市) 등, 전체 24개 현(縣)과 시, 행정수도 이닝 시(伊寧市)로 이루어져 있다.

☞ 특산품 : 이리의 천마(天馬)<sup>9)</sup>는 옛날 2000년 전부터 명성을 떨쳤다. 한 무제(漢武帝) 때 ‘천마’라 불렸으며, 중국 4대 말 계통 중의 하나이다. 이리의 한약재료 중 패모(貝母) 생산량은 전국에서 제일이며, 아위(阿魏)의 유일한 산지이다. 이리 강에서는 특이하게 뱀어위(裸腹鱷魚)가 있는데 그곳에선 칭차이위(青菜魚:채소고기)라 한다. 육질이 두텁고 가시가 적은 것이 특징이며, 맛이 좋고, 일반적으로 한 마리 당 15~20킬로그램 한다. 좋은 술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리터취(伊犁特曲)가 있다.

### 이리(伊犁), 한편의 중국 변경사

이리는 한편의 중국 변경사이다. 이리에 가면 향기가 십리를 간다는 과일계곡과 꿈결 같은 탕부라(唐布拉)초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후이위엔(惠远)고성, 이리장군부와 술탄 와스한마자(速檀、歪思汗麻扎)는 빼놓을 수 없는 명승고적이다.

이러한 풍경은 역사의 화석이다.

역사는 한(漢)나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기(史記)>, <한서(漢書)>의 기록으로 보면, 이리 일대에 가장 일찍 거주한 것은 오늘날의 간쑤성(甘肅省) 하서(河西)회량<sup>10)</sup>지대에서 이주한 싸이족(塞人), 대월지족(大月氏人), 오손족(烏孫人)이다. 대략 기원전 3C말 서한(西漢)초까지 이들은 연이어 하서회량지대에서 지금의 자치주 경내로 이주해왔다. 오손족은 이리강 유역에 유명한 오손국(烏孫國)을 세웠는데, 오손은 현재 카자흐족의 선조 뿌리 중 하나이다. 기원전 119년 장건(張騫)은

역주 9) 한(漢)조 때 오손에서 보내온 말을 보고 찬탄하여 천마(天馬)라 부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전해져 왔다.

역주 10) 황하의 서쪽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길. 황하 서쪽의 북도라는 뜻이다.



한무제의 사신으로 두 번째 서역 길에 올라 오손에 도착하여 한나라와 오손의 우호적인 관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한 공주 세군과 해우를 오손왕에게 시집보냈다. 이후 오손은 한나라 서역도호부 직할국이 되었다.

한나라와 오손의 경제문화 교류로 인해 이리와 한나라의 관계가 밀접해졌으며, 오손의 ‘천마’도 본토에 전해졌다. 6세기 중엽 서돌궐은 ‘오손의 옛 거주지’를 거점으로 중앙아시아를 통치하였고, 이리에 야짱(牙帳)을 설치하였다. 당(唐)에 귀속된 후에 당나라는 이리 각지에 도독부와 군사 기구를 두었으며, 그 결과 수당(隋唐)시기는 현 자치구 내를 관통하는 실크로드 북로를 따라 무역이 아주 성행하였다.

요(遼)·송(宋) 시대 때 서요(西遼)왕조가 중앙아시아에 세워졌고, 많은 한인이 이리(伊犁)로 이주해 농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13세기 초 징기스칸은 알타이와 이리 등지를 거쳐 서쪽 중앙아시아를 정벌하고 텐산 산맥(天山山脈)을 관통하는 타러치로(路)를 개척했다. 그 후 아들들에게 분봉하였고, 그의 제7대 세손이 현재 이리의 후오청현(霍城縣) 동북부에 묻혀있다. 이 몽고인의 후대는 16세에 왕으로 추대되었고, 18세 때 이슬람교를 신봉하였다. 서기 1352년, 그는 16만 몽고인에게 이슬람교로 귀의할 것을 강요했으며, 이슬람교를 신장지역으로 빠르게 전파시켰다. 차카타이 한국(汗國)은 그의 손에서 잠시 통일을 이루었고, 사후 그는 이슬람 의식에 따라 이곳에 묻혔다.

명조(明朝) 말과 청조(淸朝) 초기에 준가르(準噶爾)지방 정권이 서부에 군림하여, 이리(伊犁)를 정치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삼았다. 1755년 청 왕조가 준가르부를 평정한 이후 오늘날의 후오청 현(霍城縣) 경내의 옛 후이위엔(惠遠)성에 ‘이리장군’을 세웠다. 그 후 카자흐족(哈薩克族), 위구르족(維吾爾族), 한족(漢族), 시보족(錫伯族), 만주족(滿洲族) 등 민족의 관병과 민간인이 점차 현 자치주 각지로 이주해 와 목축업에 종사하고 변경을 지키며 개간하였다.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개발하여, 당시 이리지방의 경제가 번영했으며, 후이위엔 성은 ‘작은 베이징(小北京)’이라 불리게 되었다. 아편 전쟁 후 민족 영웅인 임칙서(林則徐)가 후이위엔에

유배 갔을 때, 관개수로 증축을 주관하였고, 이 수로는 개축되어 현재 100여만 ha 경작지 농민에게 관개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홍양길(洪亮吉), 기운사(祁韻士), 임척서(林則徐), 등정정(鄧廷楨), 서송(徐松) 등 저명한 유배자들이 이곳에 화려한 업적을 남겨 지금까지도 그 역사적 유적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렇듯 이리는 중원과 변경지역의 시간과 공간적 중심에서 있어 이곳에선 지리적, 역사적 두 가지 여행을 즐길 수 있다.

### ❁ 가 볼만한 곳 ❁

❁ 과일계곡 : 과일계곡은 타러치(塔勒奇)계곡이라고도 불린다. 산골짜기에 야생 과일이 분포해 있는 데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텐산(天山) 서부에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리 골짜기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으로, 험준하기로 유명하다. 과일계곡의 풍광이 절묘하여 옛 사람들은 ‘기절선경(奇絶仙境)’, ‘만화곡(萬花谷)’이라 불렀다. 최고봉에서 골짜기까지 눈 쌓인 봉우리와 가파른 절벽이 있어 험하고, 높은 산과 세찬 폭포가 기이한 절경을 이루며, 또한 과수가 숲을 이루고 야생화가 활짝 피어 아름답다. 계곡에 들어서면 사계절의 풍광을 하루에 볼 수 있으며, 산 형세가 매우 아름답다. 수려함과 아름다움에 험준함을 갖췄으니 “이리 제일경”이라 할 만 하다.

❁ 싸이리무호수(塞里木湖) : 싸이리무(塞里木)는 카자흐족 언어로 ‘축원’을 의미하며, ‘싼타이하이즈(三塔海子)’라고도 불린다. 싸이리무호수는 물이 차며, 호수는 해발 2,073m에 위치하고, 면적 450여km<sup>2</sup>로 신장 최대의 고산 호수이다. 여름과 가을이면 호반의 푸른 풀이 마치 융단과 같고, 호수는 맑고 투명하며 푸르다. 멀리 해안엔 설봉이 우뚝 솟아있고 호숫가 목초지에는 소와 양으로 수를 놓은 듯하다. 매년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백리의 몽고족, 카자흐족 유목민은 호반으로 몰려든다. 이들은 ‘나따우’대회를 열어, 풍작을 경축하고, 복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며, 경마, 양 물이, 씨름 등의 행사가 열린다. 해안에는 일년 내내 물새와 새들

이 살고 있어 '신들의 땅'이라 찬사를 듣는다.

나라티초원(那拉提草原) : 남북 신장의 교통 요로에 있으며, 세계 4대 초원의 하나인 야카오산(亞高山) 초습식물구역이다. 예로부터 유명한 목장으로 드넓은 하곡과 높고 험준한 산봉우리가 있으며, 깊은 골짜기, 무성한 산림이 현지의 카자흐족 풍습과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든다.



## 8. 후이저우(徽州) - 어렵듯한 책 향기에 길을 잃다.

☞지리적 위치 : 후이저우는 옛 부(府)의 명칭이며 지금의 안후이(安徽) 시 현(西縣) 일대이다. 황산 시(黃山市) 동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저장 성(浙江城) 린안 시(臨安市), 쑤안 현(順安縣) 천따오호(千島湖)와 인접해 있다. 서 현(歙縣)은 현(縣)인민정부 소재지 후이청진(徽城鎮)은 황산 시 지역(툰시 屯溪)에서 27km, 황산 풍경구(탕커우 湯口)에서 67km 거리에 있다.

☞기후 : 서 현(歙縣)은 아열대계절풍기후로, 사계절이 분명하다.

☞역사문화 : 후이저우는 수나라이후 1300년간 줄곧 군주부소재지였다. 특히 송대 이후 휘상(徽商:후이저우 상인)의 발전은 현지 문화의 번영을 가져왔다. 중국 전통 회화영역에 신안화파가 생겼다. 후이저우파 건축은 후이저우의 조각예술을 수용함으로써 고건축 역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서현에서 생산되는 후이벽과 베투는 문방구 중의 진품이다. 그 외 후이요리, 후이극, 후이파 판화, 후이파 분재 등도 후이문화가 주목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건축특색 : 후이저우 민가의 가장 큰 특징은 ‘말머리 모양’이다. 그 최초의 역할은 단지 불을 격리시키는 벽으로, 이웃집이나 자기집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는 실용적인 기능을 담당했으나, 이후에는 장식용 벽이 되어버렸다. 민간에서는 ‘오악조천(五岳朝天)’이라 부른다. ‘오악조천’과 함께 큰 특색을 이루는 것은 ‘사수귀당(四水歸堂)’식 주택이다. 이것은 천정을 중심으로 한 옛 집으로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외벽 창을 열지 않고 좁고 긴 천정을 통해 채광과 통풍을 해결한다.

송사(宋詞)에서 희미하게 뿔어져 나오는 청아함과 완곡함, 흑백이 선명한 건축과 달그림자가 물결치는 연못에 어리는 예스러움은 바로 후이저우가 가지는 독특한 매력이다.

이곳이 행상(行商)과 좌상(坐商)의 고향이긴 하나, 세월에 씻겨 과거 세상사는 이미 얼마 남지 않았다. 남아있는 것은 속세에 물들지 않은 청정한 건축으로 때때로 강남의 느낌이 조금 엿보이긴 하지만 진한 화장품의 화려함은 줄어들었다. 천춘, 후안과 차치 등 깨끗한 청석반길을 걷다, 비라도 온 후라면 마치 대망서(戴望舒)가 사랑했던 여인이 역사의 희뿌연 안개 저편에서 걸어 나올 것만 같다. 순식간에 그 분위기에 취한 듯 빠져든다.

‘종이우산 받쳐 들고, 혼자서 길고 긴, 적막한 비 오는 골목을 서성이면서 나는 희망한다. 라일락 같은 우수에 젖은 아가씨를...’

지금 옛 후이저우 성에는 옛 다리, 고탑, 옛 거리, 골목, 우물, 제방, 건물, 폐방 등 예스럽고 소박한 풍치가 있다. 시골 촌락 곳곳에 ‘시냇물에 다리가 놓이고 인가가 있는’ 운치가 있고, 명조와 청조의 민가, 사당, 폐방(牌坊)<sup>11)</sup>을 어디서든 볼 수 있다. 이곳은 산수의 수려함과 건축의 소박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마치 중국 문인 마음속의 이상을 인간세계에 절묘하게 옮겨놓은 듯하다.

‘원래,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정원 가득 피어 있어야 하는데, 폐허처럼 황량하다. 즐거운 일은 누구의 정원에 두고, 좋은 시절 아름다운 경치는 어찌할까?’ (목단정 牧丹亭)웬지 모르게 이 명(明)대 희극작가의 한마디에 복받쳐 오르는 것은 왜일까? 이 비가 많이 내리고 또 그 비가 어울리는 곳의 흑백이 대비되는 답에 이 같은 이야기가 어우러져 있던 것은 아닐까? 두여량과 유몽매의<sup>12)</sup> 꿈속에서 이뤄진 사랑이야기는 안개가 자욱한 이곳에서 딱 어울린다. 꿈이라 해도 꿈이 아니요 깨어났다 해도 꿈속에 있는 듯하다. 멀리 있는 산은 물기에 촉촉한 비취색을 띄고 있다. 깨지 않는 꿈이란 건 확실하지만 그래도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은 꿈이다.

이곳의 지방극은 황메이극(黃梅戲)이며, 팡촌(宏村)에서 소규모의 유랑극단의

역주 11) 폐방(牌坊)은 과거 집이나 출입문 입구에 세운 아치형의 문을 말하거나 열녀문처럼 인물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물을 말한다. 중국에서 폐방이 가장 밀집한 곳이 안휘(安徽) 성 황산(黃山)시의 서현(歙縣)과 탕웨(棠越)이다.

역주 12) 희곡 <牧丹亭>의 두 주인공

춘극을 본적이 있다. 현지 노인의 녹음기에서 울리는 것 또한 황메이극 고전의 한 단락이다. 황메이극은 너무 경쾌하고 밝아서 오히려 곤곡(昆曲)이 이곳과 잘 어울릴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희곡이나 이곳에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 <목단정>에서 두여랑이 무대에 올라, 작은 부채를 들고 노래 부른다. ‘하늘거리는 거미줄이 한가한 정원을 늙게 하고, 봄날은 실처럼 흔들린다. 잠시 멈추어, 꽃단장을 정리한다....’라며 긴 덧소매를 흔드는데, 저 멀리 보이는 풍경이 바로 후이저우다.

달빛이 비치는 연못가는 조용히 앉아 있기 좋다. 그 곳에 밤새 앉아있다 보면, 미풍이 불어 수면이 일렁인다.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집은 누구의 집인지 그 집의 온기는 마치 오래전의 것인 듯하다. 이런 달빛과 불빛아래에서 이곳에 어떤 풍류가 있었고, 어떤 가인이 예전에 이곳에 머물렀을 지도 모른다는 환상에 빠진다. - ‘정자누각은 아침저녁으로 아름답고 가랑비에 유람선은 유유히 안방에 규수는 세월이 흘러간 것을 한탄한다. 어디서 봤을까? 마주보니 닮았는데 만나도 한마디 말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자 덧없는 인생에 조용히 눈물이 흐른다.

후이저우 골목을 걷다보면 사람을 도취하게 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게 하기도 한다. 건축 그 자체의 영원함과 고즈넉함은 오히려 인생의 열망에서 혼재되어 사람의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문 앞에 웅크려 앉은 노인들의 눈빛은 놀랍다. - ‘당신은 꽃처럼 아름다운 연인, 세월은 물처럼 흐른다.’

사수유년(似水流年)은 인생의 노년에 느끼는 세월의 무상함이자 너그러움이다. 신안비원(新安碑園)은 감동으로 말을 잊게 한다. 원림은 통속적이지 않고, 모든 건축이 산에 의지해 이어져 있다. 다양한 꽃 장식 벽, 창, 문이 서로 통하고 비랑(碑廊)은 구불구불 이어져 있다. 높은 곳에 정자를 세웠고, 낮은 곳에 못을 두고, 대나무 그림자가 하늘거리는 사가 원림은 스스로 풍격을 체득하였다. 동시에 산에 건축되어 산과 들의 느낌을 표출해 낸다. 가장 좋은 부분은 그 비원랑감(碑園廊龕)에 진열된 비첩이다. 예를 들어 명조(明朝) 만력(萬曆)제때, 서 현의 연간 수집가 오연(吳延)이 수집하고 조각한 ‘여청재첩(余淸齋帖)’과, 명조(明朝) 숭정(崇禎)년간의 수집가 오정(吳楨)이 조각한 ‘청감당첩(淸鑑堂帖)’, 두 비첩을 합하면 모두 200여개가 된다. 진(晉)나라부터 명(明)나라까지 역대 중국 서예대가들

의 대표작으로 잘 새겨져 있으며, 그야말로 세상에서 얻기 힘든 진귀한 작품이다. 후이저우(徽州)의 절묘한 점은 건축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타향을 고향으로 여기는 것은 결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야말로 고향이라 할 수 있다.

### ☞ 가 볼만한 곳 ☞

☞ 탕웨이파이광친(棠越牌坊群) : 안후이성 남쪽 패방 중 가장 유명한 곳으로 서형성 서쪽 교외 6km지점에 있다. 촌락에는 패방 7채가 연달아 있으며, 고풍스럽고 우아하다. 앞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모두 ‘충(忠), 효(孝), 절(節), 의(義)’의 순서로 나열되어있고, 각 패방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다. 건륭(乾隆)황제가 강남을 다스릴 때, 일찍이 패방의 주인 포씨(鮑氏) 일가를 크게 표창하여, 이곳을 ‘자효천하무쌍리, 금수강남제일향(慈孝天下無雙里, 錦繡江南第一鄉)’이라 하였다.

☞ 쉬궈스궈(許國石坊) : 쉬궈스궈 혹은 대학사방(大學士坊)이라 한다. 명조(明朝) 만력(萬曆)제 때 세워졌으며, 나라에서 태자태보 예부상서이자 무영전대학사 허국(許國)을 위해 건립한 것이다. 허국은 명(明)나라 가정(嘉靖) 을축년(乙丑年) 서기1565년에 진사에 합격하였으며, 가정(嘉靖), 용경(隆慶), 만력(萬曆) 3대에 황제의 신하였으며 황제의 신임을 얻어 ‘특별한 포상’을 받았다. 석방(石坊) 표면 남북길이는 11.54m, 동서 폭 6.77m이며, 높이 11.5m이다. 전체는 4면에 8개의 기둥이 있으며, 입구(口)자 형이다. 돌기둥, 양방(梁坊), 난방(欄坊), 난판(欄板), 두공(斗拱:지붕의 무게를 떠받치기 위한 특수구조물), 작체(雀替:들보와 주기둥 사이의 구조물)는 모두 4겹에 5톤의 석재로 만들어졌다. 또한 재질이 단단한 청색차원석이며, 석방위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우며 소박하고 호방한 조각이 넓게 새겨져있어 후이저우 석조 예술의 걸작이다. 허국석방은 기둥 4개가 연달아 있고, 발 8개가 서 있다고 해서, ‘팔각패방(八脚牌坊)’이라고도 하며, ‘동방의 개선문’이란 찬사를 받는다. 석방의 글씨는 모두 허국의 문생으로 유명한 동기창(董其昌)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석방을 더욱 호방하고 아름다우며 위엄 있게 한다.

☞ 터우산제(斗山街) : 이곳은 옛 민가, 옛 거리, 조각, 우물, 고패방(古牌坊)이 모여 있는 하나의 여행문화 명소이다. 명·청조 시대에 세워진 터우산제는 전형적인 후이저우 민가 왕씨 개인주택과 관료집안이던 양가의 정원, 옛 개인서당 허가청(許家廳), 대대로 상업을 하던 반가의 정원, 천년의 ‘두꺼비’ 옛 우물, 보기 드문 나무 방패방 -- ‘엽씨정절방(叶氏貞節坊)’ 등이 있다.

☞ 베이엔랑차오(北巖廊橋) : 베이안진(北岸鎮) 향후이 고속도로(杭徽公路) 우측 300m지점에 위치해 있고, 작은 도로가 시내를 따라 랑교(廊橋)로 통한다. 랑교의 한쪽에는 ‘겸엄구지(謙庵舊址)’가 쓰여 있고, 한쪽에는 ‘향현리(鄉賢里)’라 적혀있으며, 측면에는 ‘서류육수(西流毓秀)’ 4자가 적혀있다. 다른 한 면은 다양한 형태의 서로 다른 창문이 있고, 다리 안쪽 양측에는 목제 의자 있고, 중간에는 불단이 있다. 다리에 복도를 만들어 비와 바람을 막을 뿐만 아니라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여름이면, 다리 옆에서 무료로 차를 제공하여 행인의 갈증을 풀어주기도 한다.



## 9. 아리(阿里) - 빛과 그림자의 산들

☞ 지리개황 : 사람들은 칭짱고원(靑藏高原)을 ‘세계의 지붕’이라 한다. 그렇다면 그 서부의 산세가 웅위한 아리는 세계 지붕의 ‘지붕’이다. 티베트의 경전을 ‘뚜이아리(堆阿里)’라 하는데, ‘뚜이(堆)’는 티베트어로 ‘상부’란 뜻이며, 티베트(西藏)에 선 해발이 높은 지역을 ‘상부’라 한다.

아리는 티베트(西藏)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으로 신장(新疆), 칭하이(靑海)와 접해 있고, 동으로 나취(那曲)지구, 시가체(日喀則)와 접해 있다. 서남으로 각각 인도, 네팔과 접한다. 아리의 평균 해발은 4,500m 이상이며, 전체적 지세는 북쪽과 남쪽으로 높고, 중앙부가 낮은 지형이며, 호수가 많고, 인가는 드물다.

☞ 행정구역 : 자치정부소재지 스첸 허(獅泉河 인더스 강) 아래 푸란(普蘭), 자다(札達), 르투(日土), 가얼(噶爾), 가이쩌(改則), 거지(革吉), 취진(措勤) 7개현이 있으며, 지리상 시장 북부 고원에 속한다.

☞ 면적, 인구 : 면적은 31km<sup>2</sup>, 티베트(西藏) 전체의 1/4을 차지한다. 인구는 6만 여명이다.

☞ 기후 : 가장 좋은 계절은 매년 5월에서 7월 상순,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이다.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은 티베트의 우기이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크며, 반드시 옷을 많이 준비해야 한다.

☞ 특산물 : 야크, 티베트영양, 야생나귀등 다양한 야생동물의 천국이다.

### 거대한 산위로 쏟아지는 강렬한 빛과 그림자

쑤칭이(孫成毅)라는 사진사를 기억하는가? 이 남방 사람은 여섯 차례 아리를

방문 할 때마다 전혀 훼손되지 않고, 경탄할 만한 아름다운 곳을 찍은 사진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의 카메라에서 고원의 순결한 태양빛은 거대한 산위로 쏟아지는 강렬한 빛과 그림자가 된다. 쪽빛의 호수와 하얀 조약돌, 고원 상공의 신비한 밤하늘과 유난히 빛나는 별들에 휩싸인 눈앞의 광경은 인간 세상과 멀리 떨어져 범속하지 않은 듯하다. 그가 이런 완벽한 아름다운 풍경을 수 미터 규모의 길이로 관중 앞에 보였을 때 그 누구라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중국 미술관에서 개최한 개인 사진전이 끝난 후 그 중 길이 3m의 사진 두 장을 그 곳에 영구적으로 남겨두었다고 한다.

아리는 신비로움으로 유명한 곳이며, 이곳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기로 유명한 히말라야, 카일라스, 쿤룬, 카라코람산 산맥이 그 경내에서 가로로 엮여 있어, 이 고원 위에 또 다른 고원이 있다. 그곳의 산은 높고 길은 험하며, 건조하고 산소가 부족하며, 기후가 열악하고, 인적이 드물지만 ‘신산(神山, 카일라스산)과 성호(聖湖, 마나사로바)’, 고계 왕국의 ‘몽환의 전설’이 그곳 상공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신비감을 헤아릴 수가 없다. 신도들은 신비로운 호수 성수로 영혼의 탐욕(貪), 화(嗔), 어리석음(痴), 태만(怠), 질투(嫉) 5가지 독과 살갓의 불결함을 씻어낼 수 있다고 믿고, 많은 신도 참배자들이 이곳에서 참배목욕 후 성수를 가지고 돌아간다. 이것은 진귀한 선물로 친지나 친구들에게 선물한다. 또한 티베트(西藏) 현지의 신도와 이웃 국가의 신도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1950년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인도, 네팔 등 이웃 국가와 신도 성지순례 입국을 허가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1997년 국무원은 티베트의 아리지역 성지순례 대외개방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하는 규정을 내놓아,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신도들의 성지 순례 활동이 편해졌다.

따라서, 그곳은 전 세계 탐험가들이 찾는 곳일 뿐 아니라, 성지순례자들이 성지 순례하는 곳이기도 하다. 참배의 대상은 신일 수도 있고, 아름다움일 수도 있다.

오늘날의 아리고원은 교통이 아주 편하다. 신장 고속도로(新疆公路)는 신장에

성(新疆叶城)에서 푸란(普蘭)으로 뻗어있어, 아리 남북쪽을 관통하고 있다. 그래서 라쯔(拉孜)에서 푸란(普蘭)까지 도로는 오히려 아리(阿里)를 통하는 남선으로 불린다.

라쯔(拉孜)에서 취진(措勤)을 통과해 아리 스첸 허(獅泉河)에 이르는 중앙선의 여행루트라 불리는 이곳에서는 상무바티산의 원추형 황금색 산봉과 광활한 자르 남초호수의 새섬, 수초가 풍부하고 아름다운 따와쵸, 백설이 새하얀 바린강르 못 봉우리를 볼 수 있다. 동취(洞措) 부근의 드넓은 초원에는 나취에서 스첸 허로 통하는 도로는 구불구불 하늘을 향해 펼쳐져 있다. 이것은 티베트 북쪽에 건설된 도로로 라싸에서 도로 북쪽을 따라 나취 서쪽을 지나 아리 고원으로 곧바로 이어져 있다. 아리 고원 여행에선 고원의 호방함과 웅장한 자연 풍광 외에 길가의 마멋, 야생토끼와 여우, 호수 위 수초의 광둥오리, 검은 목 두루미 그리고 수많은 이름 모를 새들로 적막감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도로 부근에는 늘 무리지어 다니는 몽골 가젤과 야생나귀, 티베트 영양을 볼 수 있다.

아리에는 낮과 밤, 흑백, 명암, 변화와 적막 등 여러 가지 대비되는 감정이 묘한 조화를 이룬다.

예를 들어, 티베트문화지구로 들어서면 눈앞에 펼쳐지는 뒤마 하곡(多瑪河谷)의 너른 풀밭과 소떼와 양떼의 풍경은 무척이나 아름답다. 하지만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면 산비탈과 산정상은 마치 달이나 화성 같이 황량하여 서로 강하게 대조를 이룬다.

예컨대, 뒤마 하곡(多瑪河谷)을 100km 지나면 르투(日土)에 도착할 수 있다. 아름다운 뽀공 호수(班公湖, 팔곤호수)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 길이는 150km이고, 호수면은 좁고 길며, 가장 좁은 곳의 수심은 몇 십 미터에 불과하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중국 영토 내에 있는 부분은 담수로 어류가 유달리 많으나, 인도 영토 내에 있는 부분은 염수로 사람이나 짐승이 음용할 수 없으며, 어류 또한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그곳 4000여m의 고원은 황량하고 싸늘한 것이 다른 곳에 비해 놀라운 장관을 이룬다. 하지만, 이곳은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신비로운 산,

성스런 호수 등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연문화 경관과 산을 끼고 건축하고 설계한 구계(古格) 왕조의 유적이 있어 마치 두 개의 세상이 있는 듯하다. 서쪽으로 뻗어 있는 상첸 허(象泉河) 부근에 서서 아득히 멀리 바라보면 그 곳에 천 여 년 역사의 시간동안 풍파를 겪어 온 고성(古城)이 홀로 살아남아 여전히 그 기세가 웅대하고 경이롭다. 마치 신의 왕국인 마냥 산기슭에는 300여 칸의 방과 동굴 그리고 많은 방들의 유적이 있다. 하지만 비좁고 어두우며, 처량하고 낡아있다. 이곳은 그 당시 노예와 백성들의 거처이다.

이런 흑과 백의 교차를 보았다면, 비로소 진정한 아리를 본 것이다.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는 그 곳은 원래 이처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느낌을 선사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것들이 여행 중인 순례자들을 매료시킬 수 있을까?

#### ✧ 가 볼만한 곳 ✧

아리의 여행 자원은 설산으로 둘러싸인 푸란(普蘭), 토림(土林: 흙으로 된 숲)으로 에워싸인 자다(札達), 호수에 둘러싸인 르투(日土) 등 ‘삼위(三圍)’로 대표된다.

☞ 구계왕조(古格王朝)유적 : 티베트 아리지구 자다 현(扎達縣) 서쪽 18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구계왕조(古格王朝)는 842년 토번(吐番) 랑다마(朗達瑪) 왕조 붕괴 후에 형성되었다. 당시 티베트에는 많은 지역의 토왕들이 각자 행정구역을 통치하고 있었다. 구계왕국은 랑다마의 독자 웨이송(纬松)이 서쪽 아리로 간 후 상첸 허(象泉河) 상류에 세운 소왕국이다. 이 왕국은 500년에 걸쳐 이어졌으며, 티베트(西藏) 불교의 후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1650년 외부의 침입과 내부 분쟁 그리고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대부분 소멸되었다. 현재의 구계왕국 유적 건축 규모는 웅대하며, 잔존하는 담장에는 수많은 독특한 풍조의 벽화와 문화재가 있다. 이것은 티베트 역사, 문화, 예술, 종교 등의 연구에 있어서 역사 문화재 자료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다 토림(扎達土林) : 자다 현(扎達縣)은 해방 전 아리지구의 종교중심지로 유명한 튀린사(陀林寺)의 소재지이며, 평균 해발 4000m에 달한다. 자다현성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토림은 대단히 웅장하고 아름답고, 뛰어나다 할 수 있으며, 지질학 제4기에 형성된 지형이다. 그 중 마오즈꺼우의 토림이 제일 장관을 이룬다. 높고 평평한 산등성이 아래의 정연한 산체는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미국 서부의 그랜드 캐년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수평 암층은 홍수 침식을 거쳐 형성된 기괴한 협곡으로, 가파르고 우뚝 솟아 있으며, 웅장한 자태를 이룬다. 정연한 산체는 하나하나의 토성의 보루 같고, 면적은 수백km에 이르며, 거대하고 광활하여 스켄 허 해안에 곳곳이 서 있는 튀린사(陀林寺)와 하나가 된다.

☞신산(神山, 카일라스산) : 카일라스 산맥의 주봉우리는 강런뵈치펑(岡仁波齊峰)이며, 티베트의 유명한 ‘신산(神山)’이다. 아리지구 푸런 현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해발 6,714미터이다. 산 정상은 금자탑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빙설 중 노출된 암석들은 신이 만들어 놓은 듯 매우 정교하여, 마치 하늘로 통하는 계단처럼 하늘을 찌를 듯 서있다. 전설에 이 산에 신령이 있다하여, 티베트족은 신산을 한 바퀴 돌고나면 일생동안 지은 죄를 씻을 수 있고, 100번을 돌고나면 성불할 수 있다고 믿었다. 불교 신도들은 이 곳에 와서 참배 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

☞신호(神湖, 마나사로바 호수)와 귀호(鬼湖, 락샤스 탈 호수) : 아리 푸란 현(普兰县)에 위치해 있으며, 두 호수가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에 있다. 산마루를 사이로 서로 떨어져 있는데, 거의 한 걸음 밖에 안 된다.

귀호(鬼湖)는 티베트어로 ‘청라양취’라고 하며, 호수 물이 짜서 사방에 동식물이 적어 적막하고 황량하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할 말을 잃고, 그저 우러러 본다.

신호(神湖)는 티베트어로 마팡용취라 또는 마과용취라 하며,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푸른 옥과 같은 호수’라는 뜻이다. 인도에 이곳은 히말라야산의 딸 우마여신이 목욕한 곳이라는 전설이 있다. 티베트 고대 전설에서 이곳은 신이 살던 곳이다. 당(唐)나라 현장(玄奘)은 <대당서역기>에서 이 호수를 ‘서쪽하늘의 요지(瑤池)’라 하였고, 불교 경전에서는 이 호수를 ‘세계 강의 어머니’라고 한다. 신도들

은 신호의 성수로 씻으면 인간의 몸과 정신의 각 종 불결함이 씻겨 진다고 여겨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곳으로 성지순례를 위해 온다. 신호에는 4대 욕문(浴門:4개의 욕실)이 있다. 바로 동쪽으로 연화욕문(蓮花浴門), 남으로 향침욕문(香甜浴門), 거오욕문(去汚浴門), 신앙욕문(信仰浴門)이다. 또한 네 줄기의 강의 발원지가 있다. 동쪽으로 마첸 허(馬泉河), 남으로 쿵첸 허(孔雀河), 서쪽으로 상첸 허(象泉河), 북쪽으로 스첸 허(獅泉河)가 있으며, 이 네 줄기의 강은 각각 남아시아의 유명한 갠지스 강, 알룽창포 강, 수틀레지 강, 인더스 강의 발원지 이다.

☞ 푸란 국제시장 : 푸란은 원래 불교 성지이다. 현성(縣城)은 나무나니설봉과 아비봉 사이의 쿵첸 허(마자짱부)골짜기에 위치해 있고, 네팔, 인도와 인접하고 있으며, 아리에 둘러싸여 있는 ‘설산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오래전부터 고원 서부에 중요한 대외무역통로였으며, 매년 여름 네팔 상인들은 프랑스의 향수, 인도의 향 등 갖가지 외제 물품을 싣고 오며, 심지어 음란 인쇄물을 몰래 숨겨 이곳으로 입국하여, 이곳 ‘국제시장’에서 교역을 하기 위해 머무른다. 겨울이 오기 전 이들은 다시 양과 양 모피를 사들여 네팔로 돌아간다.

이곳에서 네팔과 인도의 부유한 성지순례자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옷이 남루한 네팔 지게꾼과 곱게 차려입은 네팔 아가씨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또한 푸란의 풍경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아리 여행 명소로는 반공 호수(斑公湖), 샤카 사원(科加寺), 령지아 호수(楞加湖), 르쿠(日土)암화가 있다.

## 10. 더텐 폭포(德天瀑布) - 이국적 분위기와 해후하다.

“신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지리적 위치 : 광시(廣西) 난닝(南寧)지구 따신 현(大新縣) 수오룽(碩龍)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의 변경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이 폭포는 더텐(德天)마을 부근의 꾸이춘 허(歸春河) 상류에 있고, 이 마을과 이웃하고 있어 더텐 폭포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 폭포의 수원(水源)은 광시 징시 현(靖西縣) 꾸이춘 허(歸春河)에서 시작되며, 일년 내내 물이 흐르고, 베트남으로 흘러갔다가 다시 광시로 흘러 들어온다. 따신 현 더텐 마을을 지난 곳에서 가파른 낭떠러지에 폭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경관특색 : 더텐 폭포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나의 폭포군을 말한다. 주로 더텐 대폭포(중국경내)와 판약(板約) 폭포(베트남경내)로 이루어진다. 이 두 폭포는 나란히 꾸이춘 허 상류에 있으며, 더텐 폭포가 더욱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 폭포군을 “아시아 제1의 국경에 걸쳐진 폭포”라 부르며, 그 기세는 가히 감탄할 만하다.

☞촬영 팁 : 더텐 폭포를 촬영하기 가장 좋은 때는 매년 7~11월이다. 이 기간은 비가 내리는 계절로 수량이 많으며 물이 맑다. 12월에서 다음해 5월은 갈수기로 이 기간은 폭포 수량이 적으며, 폭포 주변 흙과 돌이 비교적 많이 드러나 촬영 효과에 영향을 준다.

☞경계비 이야기 : 더텐 폭포의 상류 600m 지점에 53호 경계비가 하나 세워져 있다. 청조(淸朝) 시대에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청나라 정부가 경계비를 세워 국경을 확정하려 했다. 당시 이곳의 교통은 아주 불편하였다. 산은 높고 길은 멀고, 산길이 험난하여 나아가기가 어려웠다. 몇 명의 관병이 임금의 명을 받들어 경계비를 들고 이곳에 이르니, 날은 이미 어두워졌는데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했다. 그래서 이들은 잔피를 부려 이곳에 구덩이를 파고 경계비를 세웠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53호 경계비이다. 이 비석이 세워진 후 중국의 많은 영토는 베트남으로 넘어갔다.

☞ 통혼 풍속 : 현지 중국 청년과 베트남 아가씨가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은 흔한 일이다. 변경 지역의 전쟁이 끝나고 평안해진 후 양국 민간 교역 활동이 활발해졌다. 현재 베트남의 생산력은 여전히 낮고, 경제력 또한 발달하지 않아 인민폐 1원은 베트남 화폐 1,600동이다. 양국의 경제력의 차이로 베트남 아가씨가 중국 청년과 결혼하는 현상은 흔한 일이다. 재미있는 것은 베트남 아가씨가 중국 청년과 결혼 할 때 그 어떤 수속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베트남 아가씨가 중국으로 건너와 남자 집에 머무르면 바로 결혼이 성사된 것이다.

인도차이나에 대한 상상과 상념은 뒤라스의 <연인>에서 시작해서 더텐에서 멈춘다.

우기가 오기 전의 더텐은 공기가 아주 습윤하고 상쾌하여, ‘신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열대의 태양 빛은 강렬하고 찬란하다. 시리도록 투명한 공기 중에 피어난 진녹색의 활엽수, 다홍빛의 목련화, 자색의 평류화(平陵花), 수많은 거대한 하얀 꽃송이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낸다.

더텐 산장에 머물며, 해질 무렵 발코니에 앉아 베트남의 박하향 담배 ‘관허’를 빨아들이면 우수의 서늘한 기운이 마음속으로 번지고, 뒤라스가 묘사한 실크 모자를 쓴, 근심이 가득한 프랑스 소녀가 메콩강에서 평생의 연인과 해후하는 장면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이곳에서는 늘 그 책의 페이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단, 피부, 차, 아편의 냄새를 희미하게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깊은 밤의 더텐 폭포는 그 물소리로 독특한 고요함을 선사한다. 이 고요함은 더위와, 그보다 더 뜨거운 애정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날개가 둘 달린 구식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고, 거칠고 매력적인 거무스름하고 건장한 아시아 남



자와, 마치 물과 같은 프랑스 소녀는 아열대의 따뜻한 바람에 파초잎을 가볍게 어루만진다. 다른 사람의 근심과 사랑은 의외로 이렇게 기묘한 시공에서 여행객의 꿈의 세계를 위안한다.

더텐은 아름답다. 이곳엔 아찔한 높이의 폭포 외에 바람에 나부끼는 운무, 산 그늘에 평호, 푸른 물에 계단식 밭이 있고, 홍면(紅棉)과 청죽(翠竹), 민가의 급수차, 작은 다리에 흐르는 물, 가지런하지 못하고 들쭉날쭉하게 꾸며진 산 아래, 농부는 전원에서 일을 하고, 대나무 뗏목이 작은 강을 빠져나는 것은 내가 어린 시절 무수히 많이 보았던 그림 속의 남국의 풍경이다.

‘내가 담배 한 대 권해도 될까요? 아름다우시네요.’ 소녀시절의 뒤라스가 몸을 돌렸을 때 몽롱한 시선은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욕망으로 가득했다. 이러한 눈짓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확실한 해후이다. 그 누구도 그녀가 몸을 돌렸을 때 무엇을 보려 했는지 알 수 없다.

더텐 폭포의 물소리에 당신은 자신 최초의 평정을 볼 수 있다.

### 가 볼만한 곳

더텐 폭포 풍경구에는 중국과 베트남에 걸쳐진 세계 제2의 폭포이자, 아시아 제1의 국경 폭포가 있고 이곳에 신비한 변경지역의 정취가 펼쳐진다. 오백리 ‘산수화랑’이라 불릴 만큼 각양각색의 자연 경관이 있으며, 40여개에 달하는 관광 명소가 있다. 예를 들면 작은 계림이라 불리는 명사전원풍광(明仕田園風光), 샬튼(沙屯)의 뛰지디에(多級疊)폭포, 기이한 봉우리에 둘러싸이고, 수목이 울창한 헤이쉐 허(黑水河), 기이하고 아름다운 다양한 형태의 나안기경(那岸奇景), 기괴한 돌이 분포된 레이평석림(雷平石林)과 수상석림(水上石林), 수명이 평온하여 마치 거울 같고 산봉우리가 옥처럼 서 있는 차오묘오 호(喬苗平湖), 신이 깎아 놓은 듯한 독특한 형상의 용궁암(龍宮岩), 중국과 베트남 국경의 53호 경계비, 첩첩이 우뚝 솟은 산봉우리에 중유동굴이 분포한 은성산수(恩城山水)와 자연보호구역 모두 가볼만한 관광 명소이다. 변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룡저우(龍州), 징시

(靖西), 평양(凭祥), 동싱(東興)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변 풍경구 그리고 베트남의 까오방, 하노이, 몽까이, 하롱베이 등 여행 루트와 연결하기 편리하다.



## 11. 후커우 폭포 (壺口瀑布) - 천하 제일의 기세

☞개황 : 세계에서 가장 큰 황색 폭포이며, 지구상에서 유일한 ‘황색 폭포’이다. 또한 중국 제2대 폭포이다. 산시(山西)성 지 현(吉縣)과 산시(陝西)성 이촨 현(宜川縣)과 인접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촨 현성을 따라 309번국도 동쪽에서 곧바로 황하(黃河)에 다다른다. 현성에서 48km 거리에 있다. 후커우 폭포(壺口瀑布) 고도는 15~20m사이로 수량이 중국 폭포 중 가장 많다. 양안에 높은 산이 솟아 있어 황하가 이곳을 지날 때 황하수(黃河水)가 마치 비좁은 병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너비 300m로 흐르다가 갑자기 50여m로 좁아져 마지막에 커다란 말굽형태로 폭포군을 이룬다. 주 폭포의 너비는 40m, 낙차 30m이며, 폭포 물결 소리가 우레와 같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천지를 뒤흔들어 그 기세가 산하를 집어삼킬 듯하다. 황허 제1대 폭포이며, 꾸이저우(貴州)의 황귀수 폭포(黃果樹瀑布)에 버금가는 중국제2대 폭포이다.

☞역사연원 : 후커우 폭포는 오래전부터 유명하여 <수경주(水經注)>에 ‘우(禹:하(夏)나라 개국 군주)는 치수를 후커우에서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후세의 각 왕조마다 후커우를 기록한 문장이 있는데, 명대(明代) 시인은 ‘쿤룬(昆侖)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굽이돌아 주전자 안으로 모인다.’라고 칭찬하였다.

☞면적 : 후커우 폭포를 중심으로 한 협곡 풍경구로 북으로 작은 하구에 이르고, 남쪽으로 사망(仕望) 하구에 이른다. 풍경구 계획은 면적 175km, 주 풍경구 면적 27km이다.

☞여행하기 좋은 시기 : 후커우 폭포 풍경은 계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음력 3월 복숭아꽃이 만발하는 시기와 10월 우기가 지난 후 수량이 적당한 수량이 최대가 될 때이다. 이때 주 폭포와 부 폭포가 하나가 되어, 수면 가득 안개가 자욱하여, 다가갈 수가 없다. 5월과 12월의 수량은 비교적 적어 주 폭포의 너비는 20여 미터 밖에 안 되며, 가까이 다가가면 천지를 흔드는 듯한 느낌을 체험할

수 있다. 여름 황허는 우기로 접어들어 홍수의 기세가 맹렬하다. 겨울 풍경은 확연히 달라 윤기 있고 투명한 우빙과 돌사자를 닮은 얼음 조각을 감상할 수 있다.

황허의 후커우 폭포는 오래전부터 유명하여 <수경주>에 ‘우는 치수를 후커우에서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명대 한 시인은 시 <후커우>에서 ‘쿤룬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굽이돌아 주전자 안으로 모인다. 두 마리 용이 머리 위로 날아 오르고, 고래 비늘이 파도를 치면 배를 뒤집힐 만 하다.’라고 칭찬하였다.

명(明)나라 진 유번(陳維藩)은 <후커우의 추풍>이라는 시에서 ‘가을바람에 파도가 높이 솟구치고 저녁노을이 붉게 물든다.’라고 묘사하였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되어서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 몰려들었고 그 중 대만의 영화배우 커쇼우량(柯受良)이 오토바이로 황하를 뛰어 넘은 것이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이 후커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마치 황허문명을 쉽게 여기는 것과 같다.

일찍이 고서에서 후커우는 웅장한 자태의 룡문(龍門), ‘구하지등(九河之躋)’라 불리는 멩먼산(孟門山) (룡문과 후커우 사이에 위치함)과 함께 ‘황하삼절(黃河三絶)’이라 불렸다. ‘기개가 산하를 삼킬 듯하다.’, ‘소리가 높은 하늘을 끊을 듯하다.’라는 말은 그 곳을 형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휘이다. 하지만 이것은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감동일 뿐 진정한 감동은 그 황색의 토지에서만 일어난다.

경치도 단계를 나눌 수 있다면, 후커우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웅장하고 힘찬’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 곳에서 보았던 그 유명한 무지개, 이것도 현지인이 후커우 폭포를 즐기는 낙이다. 이 화려한 무지개가 위로는 광활한 하늘로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는 후커우 폭포에 닿아있어 대단히 아름답다. 물방울이 하늘로 솟구치고, 태양광이 내리 쬐어, 굴절, 반사, 회전하여, 무수한 광선과 폭포가 서로 교차하며 비추는 것만 봐도 아주 기이한 광경이라 할 수 있다. 햇살이 좋은 날은 오전 11시경 강 서쪽 산시(陝西)에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고, 오후에는 강의 동쪽 산시(山西)에서 다시 볼 수 있다고 한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이곳에 오면 여지없이 웅장하고 힘찬 느낌으로 탈바꿈한다.

하지만, 후커우는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경치가 아니다. 황하나 황토고원이 경치가 아니듯이 이 황색 대지의 많은 것들 예를 들어 건륭(乾隆), 병마용(兵馬俑), 진츠(晋祠) 등은 경치가 아니다. 경치는 눈만 있으면 되지만 후커우와 이런 경관은 그렇지 않다. 모든 기억과 시각, 청각, 후각을 동원하여 마음에 새겨둘 놀라움을 받아드릴 준비를 하고 와야 한다.

### ☞ 가 볼만한 곳 ☞

☞ 명먼산(孟門山) : 웅장한 자태의 룡먼(龍門), “구하지등(九河之躋)”라고도 불리는 명먼산(룡먼과 후커우 사이에 위치함)과 사계절 안개가 짙은 후커우 폭포와 함께 “황하삼절(黃河三絶)”이라 불린다.

명먼산은 후커우에서 2.5km 거리에 있으며, 강물이 거대한 돌에 돌로 나뉜다. 이 돌은 가로로 수백보이고, 강물을 나누며, 내려다보면 문과 같다고 해서 명먼이라 불렀다. 명먼산의 절벽에는 ‘와진광류(臥鎮狂流)’ 4개의 큰 글자가 새겨져있다. 마치 떨어질 듯 위태롭지만 이 바위는 누워서 광류를 집압하고 있어 물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와도 결코 삼켜지지 않는다. 실로 후커우의 대장관을 이룬다.

지금은 서쪽 강가에서 명먼산까지 현수교가 가설되었고, 사람들은 산에서 황허를 구경할 수 있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 강물은 명먼을 지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세로 세차게 흘러 곧바로 65km 떨어진 룡먼에 이른다.

☞ 후커우의 기이한 풍경 : 물속에서 연기가 나고, 마른 땅에 배가 다닌다.(상류에서 내려 온 배는 후커우의 바위에 대야한다. 그 후 통나무를 배 아래에 대고, 차로든 사람으로든 배를 수 백리 끌어야 한다. 폭포를 돌아 배를 다시 황하에 띄우고 물길을 따라 내려간다.) ‘무지개가 물위에서 장난친다.’, ‘산이 날아다니고 물이 선다.’, ‘마른하늘에 천둥이 친다.’

☞ 후커우 폭포의 특징 :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침식하여 끊임없이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강물이 거세 강바닥의 단애가 끊임없이 침식되어 폭포가 천천히 상류로 이동하여 매년 5cm씩 이동한다.

물속에서 연기가 나는 ‘수저모연(水底冒烟)’라는 기이한 광경은 폭포가 깊은 못으로 흘러들어 솟구치면서 가는 물결과 물방울이 10미터 높이로 치솟아 공중에 흩어지며 거대한 운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마치 이슬비가 내린 것처럼 여행객을 흠뻑 적셔 이것은 후커우 폭포의 기이한 관경인 물속에서 연기가 나는 ‘수리연모(水里冒烟)’이다. 해가 떠오르며 햇살이 강하게 운무에 비쳐 반사되어 무지개를 만들어낸다.

↳ 런주산(人組山)과 파오산(庖山) : 후커우 북쪽 그리 멀리 않은 곳에 런주산과 파오산 이 두 산이 있다. 천하가 합해진다는 ‘천하지합(天下之合)’은 이곳에서 나온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홍수가 범람하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했다. 복희(伏羲)와 포희(庖羲) 남매는 중매석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어, 남자는 농사를 짓고 여자는 베를 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어 인류 최초의 선조가 되었다. 이 둘을 기념하기 위해 후세인들은 이 두 산을 런주산과 파오산이라 불렀다. 런주산은 해발 1,700여m이고, 현재 산에는 복희의 사당 유적이 아직 남아 있으며, 사당 내에 ‘격구곤마(隔溝滾磨)’<sup>13)</sup> 그림이 있다. 또한 우물은 일 년 내내 마르지 않고, 공기는 대단히 신선하고 산뜻하다.

역주 13) 후커우 북쪽에 인조산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어느 해 홍수가 범람하여 인류를 집어삼켰고 그중 복희와 포희 남매만 살아남아 인류를 재생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둘은 남매이기 때문에 부부연을 맺을 수 없어 고심끝에 도랑을 사이에 두고 돌을 양쪽으로 굴리는 방법(隔溝滾磨)을 생각해 냈다. 바로 돌을 집어 산 정상에서 굴려 이 두 돌이 합치지면 하늘이 부부 연을 허락한 것으로 여기기로 했다. 둘은 돌을 던졌고 그 돌은 정확하게 하나가 되고 청석이 되었다. 그래서 남매는 부부가 되었고 인류 최초의 조상이 되었다. 복희 남매를 기리기 위해 이산을 인조산과 포산이라 불렀고 현재 인조산에는 아직도 복희 사당 유적이 남아있으며 사당안에는 ‘격구곤마(隔溝滾磨)’ 그림이 남아있다.

## 12. 카나스(喀納斯) - 지상의 천국

☞지리개황 : 카나스(喀納斯)는 몽고어로 ‘아름답고, 풍요롭고, 예측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라는 뜻이다.

카나스 자연보호 구역은 신장(新疆) 아러타이(阿勒泰)지역 부얼진(布尔津) 현 서북부에 위치해 있고, 중국 아얼타이산(알타이산) 서북부끝 심산 밀림 속에 있으며, 면적은 2,000여km<sup>2</sup>이다. 카나스강은 보호구역내 주요 강류로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전 구역을 관통하고 있다. 고산에서 하류가 넓어지고, 깊어져 형성된 아커쿠러호(阿克庫勒湖)와 카나스호(喀納斯湖)는 구슬처럼 꿰어 카나스 중심에 박아놓은 듯하며, 그것들은 고산 담수호에 속한다.

☞문화개황 : 카나스의 생태계는 기이하고 독특하다. 빙하, 동토, 고산, 강, 호수, 삼림, 초원 등 각종 자연 경관이 이곳에 모여 있다. 북부지방의 풍경 뿐 아니라 강남의 수려한 경관까지 어우러져 있다. 한 UN관계자는 ‘카나스는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으로, 그의 존재는 인류가 과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아름다운 거주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하였고, 유명한 학자 전위장(錢偉長)은 여기는 ‘아시아 유일의 스위스 풍경’라고 찬사했다.

☞기후 : 대륙성한대 기후의 고산 지대로(寒溫帶高寒山区), 겨울이 길고 여름이 없으며, 봄에서 가을로 바로 들어간다. 7월의 평균 기온은 15.9℃,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은 80~108일 이며, 기후는 따뜻하다. 가장 여행하기 좋은 기간은 7월에서 9월이며, 10월에도 가을 풍경을 볼 수 있다.

☞특산물 : 카나스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남시베리아지역의 동식물이 분포된 곳이며, 중국에서 대륙성한대 식물종이 가장 많은 곳이다. 이곳의 신장 오침송(五針松), 신장 전나무, 관목 버드나무 그리고 시베리아 팔배나무, 말오줌나무(넓은잎 딱총나무), 노근(鹿根), 소엽화(小叶樺), 아얼타이 대황계퇴삼(大黃鷄腿參) 등은

중국에 거의 없는 식물의 분포구역이다. 동물, 각종 꽃나비가 분포하고 있어 가장 여행할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카나스는 몽고어로 '아름답고, 풍요롭고, 예측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라는 뜻이다.

몽고어로 '아름답고, 풍요롭고, 예측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라는 뜻이며, 원나라 야율초재(耶律楚材)가 이를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하였다. '서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 동쪽의 임금이 세상사를 모르는 것을 알았다. 각양각색의 호수가 300개 있고, 맑은 봄날의 물은 평온하기만하다.' 카나스의 파란하늘, 하얀 구름, 설산, 은령, 삼림, 습지, 강과 카나스호수가 서로 비취, 호수의 빛과 산의 색이 일체가 된다. 북부지방 풍경의 웅장함과 강남 산수의 수려함을 지니고 있어 '아시아 유일의 스위스 풍경'이라 불린다.

카나스에 관한 많은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온다. 보러바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카나스라고 하는 잘 생긴 청년을 사랑하였다. 이들의 결혼은 종족간 세력의 반대에 부딪쳤고 카나스는 강압에 스스로 호수에 몸을 던졌다. 이에 소녀는 설산으로 변하여 밤낮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주위를 지키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그칠 줄 모르던 눈물은 호수로 흘러들어 가 강을 이루었는데 이후에 사람들은 이 호수를 카나스라 부르고, 호숫가에 있는 산을 보러바따이봉(勃勒巴岱峰)이라 불렀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다. 또한 신비로운 이야기로 최근 카나스호수의 수중괴물이 소나 말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수중 괴물은 한 번에 몇 십 마리가 나타나며, 머리의 너비는 1m, 몸의 길이는 10~15m, 무게는 1톤이 넘는 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후에 이 소식은 국내외 많은 신문에 게재되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것 이야기는 충분히 카나스를 신비롭게 만든다.

카나스의 아름다움은 마치 카나스가 인간세상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한다.



<코란>과 <하디스>에서 천국의 낙원에는 네 강이 있는데 알라신의 옥좌아래에서 나온다고 한다. 이 네 강은 색이 변하지 않는 물의 강, 맛이 변하지 않는 우유의 강, 강렬한 술의 강과 순수한 꿀의 강이라고 한다.

성경에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정원을 촉촉하게 적시고, 그곳에서 네 길로 갈라진다. 첫 번째 강은 비손으로 하월라 온 땅을 에워싸고 있다. 그 곳에 아주 좋은 금이 있고 또한 진주와 호마노도 있다. 두 번째 강은 기혼으로 구스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세 번째 강은 히데겔라이며 앓수루 동쪽에 흐른다. 네 번째 강은 바로 유브라데이다.’라고 한다.

위의 네 강은 이미 학자들의 고증으로 신장의 허티엔(和田)지역으로 밝혀졌다. 흥미로운 것은 또 다시 어떤 학자가 카나스호 지역도 네 개의 호수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색이 변하지 않는 호수(카나스호): 카나스호는 실제로 넓은 강으로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다. 따라서 카나스호의 물은 그 색이 변하지 않으며 무색으로 ‘색이 변하지 않는 강’으로 볼 수 있다.

백호(白湖 아커쿠러호): 카나스호수 상류의 무인 지역으로, 물의 색이 우유처럼 하얗기 때문에 중국어로 하얀 호수라고 한다. 사실 이 호수 또한 드넓은 강으로 맛이 변하지 않아 ‘맛이 변하지 않는 우유의 호수’라 할 수 있다.

흑호(黑湖 카라쿠러호): 카나스 동쪽의 방목 지역으로 물이 순흑색이다. 중국어로 검은 호수라는 뜻으로, 이것은 강줄기가 아니어서 물이 나가는 입구가 없고, 호수의 생물이 부패하고 발효되어 냄새가 난다. 따라서 ‘강렬한 술의 호수’라 볼 수 있다.

밀호(蜜湖 바이샤호): 카나스호 지역 185단 농장의 사막에 위치해 있다. 수중에 대량의 백색 모래가 마치 설탕 같다고 해서 ‘순수한 꿀의 호수’로 라고 한다.

카나스에 오면 카나스를 떠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검푸른 우뚝 솟아 있는 설봉의 품에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마치 온전히 양쪽의 녹색 비탈과 검푸른 숲에 모여 있는 듯하다. 아름다운 꽃과 나비가 있는 호수에 비쳐진 풍경에 압도되어 침착해지고 심지어 그 고요함에 숨이 멎을 같다. 때때로 바람에 스치는 찬 기운이

해안의 넓은 숲을 스쳐 지나 숲의 나뭇잎소리는 음악과 같아 사람으로 하여금  
 녀을 잃게 한다. 평온한 호수에 물새가 울며 날아오르면 호수 깊은 곳의 그 고요  
 함이 더욱 두드러진다. 높은 부라리한(布拉勒漢) 목조다리에 서서 저 멀리 내려  
 다보면 이 광활한 카나스 호수는 먼 곳의 삼림에서부터 꿈틀거리며 나오는 듯  
 하고, 그 호수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사색이 일어난다. 이때 사람은 다리가  
 되고, 다리는 사람이 되어, 사람과 다리가 혼연일체가 된다. 모든 것들이 아름다  
 움의 증거가 된다.

산마오(三毛)는 무릇 생화, 벌꿀, 호수가 많은 곳은 천당이라 하였다. 이 만발  
 하는 꽃은 비단 같고, 호수는 꿀과 같은 이곳은 곧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 ☞ 가 불만한 곳 ☞

☞카나스호(喀納斯湖) : 카나스호(喀納斯湖)는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수려한 산  
 사이에 있는 호수이다. 카나스 허(喀納斯河)는 비교적 드넓고 완만한 하천 구간  
 이다. 카나스호는 초승달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길이 25km, 면적 44.78km<sup>2</sup>, 그  
 유명한 보거다 천지(博格達天池)의 10배이다.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은 188.5m,  
 중국과 국경의 백두산 천지(최고 수심 312.7m)외에 중국 내륙에서 가장 깊은 호  
 수이다. 호수면은 계절과 날씨의 변화에 따라 그 색깔이 변한다. 맑은 날은 청녹  
 색, 흐리고 비 오는 날은 회청색, 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는 호수가 얼은 청녹색에  
 유백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호수로 유명하다.

카나스호에는 몇 가지 기이한 경관이 있다. 첫째, 천 미터 높이의 긴 고목 제  
 방이다. 이것은 카나스호에 뜬 나무가 세차게 부는 골바람에 역류하여 떠 있어  
 호수 상류에 쌓여 형성된 것이다. 둘째, 호수에 거대한 ‘호수 괴물’이 있어 호수  
 에서 물을 마시는 말을 호수로 끌고 들어간다고 한다. 이것은 카나스에 신비감을  
 더해준다. 어떤 사람은 현지 특산물인 대홍어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도 한다.  
 셋째, 비가 온 후에 볼 수 있는 기이한 광경으로 카나스 운해의 광환 현상<sup>14)</sup>이

역주 14) 달무리나 해무리처럼 구름이 빛을 받아 불그스레한 빛을 발하는 현상.

다.

☞ 웨량만, 와룡만(月亮灣, 臥龍灣) : 카나스 허에는 9개의 만이 있다. 그중 유명한 명소는 와룡만과 웨량만이다. 와룡만은 강 중앙의 구불구불한 모래섬 일대로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 와룡만에서 카나스 강을 끼고 북쪽 1km 지점 협곡에서 푸른색 달 형상의 호수만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웨량만이다. 웨량만은 카나스호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카나스호에 명주를 박아놓은 것이다. 강이 굽이도는 곳 중간에 두 개의 발자국을 닮은 작은 모래사장이 있다. 전설에서는 상아(嫦娥)가 달로 돌아갈 때 남긴 것이라고도 하고, 징기스칸이 서역 정벌 때 남긴 것이라고도 한다. 아름답고 고요한 월량만은 카나스를 상징하는 경치구이다.

☞ 관위팅(觀魚亭) : 하라카이터산(哈拉開特山)정상에 세워졌고, 해발 2030m이며, 산정상은 카나스호 서쪽 해안을 따라 초승달 모양으로 나타나는 곳은 카나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점이다. 카나스호의 유명한 '수중괴물'인 대홍어는 바로 이곳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멀리 설봉이 은백색으로 치장한 것이 보인다. 가까이 고개 숙여 호수를 보면 연무가 피어오르는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들어온다.

☞ 투와인 마을(圖瓦人村落) : 투와인은 중국의 오래된 민족으로 유목과 수렵 생활을 한다. 400년 가까이 카나스 호반에 정착해 살았으며, 인구는 2,000명이 안 된다. 그들은 용맹하고 말을 잘 타며, 스키를 잘 타고, 가무에 능하다. 현재 비교적 원시생활방식을 유지한다. 일부는 투와어(圖瓦語)를 사용하는데 언어학상 그들은 카자흐족 언어에 가깝고 몽고 언어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투와 인이라 부른다. 이 투와인들은 오래도록 온전한 마을 그리고 민족 혈통관념과 민족의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원시 풍습을 숭배하는 것이 카나스호처럼 신비함이 가득하다.

### 13. 첸둥난(黔東南) - 녹색 생명의 땅

☞지리와 인구 : 3만여km<sup>2</sup>, 1개의 현급 시와 15개의 현이 있고 인구는 400만정도 된다.

☞민족 : 먀오족(苗), 둥족(侗), 한족(漢), 부이족(布依), 좡족(壯), 투가족(土家), 수이족(水), 야오족(瑤) 등 20여개 민족이 있고, 그 중 먀오족 둥족 인구가 61.5%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먀오족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기후특징 : 첸둥난의 기후는 온난하고, 강수량이 충분하며, 연평균 기온이 14~18.5도 사이이다.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 : 봄, 여름, 가을

☞언어 : 현(縣) 시내에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보통화 수준이 높다. 먀오寨(苗寨)와 둥寨(侗寨) 내부에서는 자기 민족 언어를 사용한다. 많은 마을에 인공위성 안테나가 설치되어있어 TV를 볼 수 있고, 여행객 또한 증가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약간의 보통화를 할 수 있으며, 간단한 소통이 가능하다. 마을에 초등학교가 있다면 어린이들과 비교적 나은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기본 예의 : 소수민족 지역을 여행할 때 현지 주민들의 민족 신앙과 생활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산수와 함께 하는 민족은 이야기, 전설이 있게 마련이다. 첸둥난의 먀오족과 둥족은 전설이 특히 많은 민족이다. 둥족의 옛 노래를 보면 둥족의 선조 장량(姜良)과 장메이(姜妹)는 원래 남매였는데, 인류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결혼 했고, 고깃덩이를 낳았다. 화가 난 장량은 고깃덩이를 부셔 산비탈과 하곡에 내던졌다. 하곡으로 흘러들어간 핏물은 한족이 되었고, 살은 둥족이 되었다. 심장, 허리, 장, 허파는 야오족이 되었으며, 뼈는 먀오족이 되었다. 둥족은 부드러운 살이라

산과 물이 곁에 있는 곳에 살았고, 마오족은 단단한 푸른 단풍나무 같은 뼈에서 비롯되어 높은 구름에 살았다.

이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설로 이야기에서 동족인들은 스스로 산수에 대한 열정의 신비롭고 귀여운 이유를 찾은 것이다. 동족의 거주문화에서 산과 물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기 때문에 동족의 마을은 대부분 지대가 낮고 경사가 심하지 않은 산비탈에 세워졌다. 평탄한 독에 기대어 있고, 높은 산을 등지고 먼 산에서 흘러오는 개천으로 둘러싸인 마을, 운택한 동족인들의 생활이다. 산이 있고 물이 있으면 마을이 있다. 동족인들의 나무에 대한 애정은 두텁고 깊다. 그들이 자신의 텃밭에 가득 심어 놓은 과수는 온 마음으로 가꿀 뿐 아니라 매년 정월 초에는 과수나무에 ‘연갱밥(年更飯:새해에 나무에 주는 밥)’을 준다. 또한 동족인은 마을 주위에 마을의 “풍수의 나무”를 정하여 이 나무들을 더욱 소중히 보살핀다.

마오족 사람들의 전설에 인류는 누명을 쓴 단풍나무에서 탄생했다. 그 단풍나무에서 인류의 어머니 ‘메이방메이류(妹榜妹留)’가 나온 후 물 위의 거품과 ‘요우광(游方)’한 후 아이를 가져 알 12개를 낳았고 16년 후 그 중 황색의 알이 부화해 마오족의 선조 장양(姜央)이 탄생하였다. 단풍나무에서 탄생한 마오족인들은 아직까지 나무에 대한 숭배를 보존해 오고 있다. 그들은 아이를 낳은 후 귀신을 불러 점을 쳐 산의 나무 한그루를 아이의 ‘수호신’으로 정하여 아이를 나무에게 맡기고 나서야 부모를 안심한다. 마오족 남자들은 모두 사냥의 고수이다. 하지만 3월 따뜻한 봄, 모든 짐승들이 번식하고 기르는 계절에 그들은 사냥하지 않는다. 다만 10월 가을 수확이후, 비로소 산에서 대규모 사냥이 허락된다.

여행 할 때, 당신은 시시각각 사람과 자연의 그런 평등과 조화를 느끼지 못한다. 첸둥난의 마오족과 동족 사람들에게 녹색은 생활환경의 필수품일 뿐 아니라 온전한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이 척박해 보이는 땅에서 사실 부유한 영혼이 잠재해 있고, 이런 영혼의 원만함과 풍족함은 현대 사회의 우리들이 도달하기 힘든 경지이다. 이러한 영혼 상태는 동족의 ‘대가(大歌)’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 그것은 생명의 깊은 곳에서 비롯된 가장 소박한 소리이다. 소위 ‘대가(大歌)’는 동족이 장기간 노동생활에서 다듬어지고 보존되어 온 산가(山歌)이며, 곡

마다 한 사람이 주가 되어 부르고 다른 사람이 화음을 넣는다. 고음, 중음, 중저음과 저음 등 4성부로 나누어지고, 반주 없이 노래하거나 비파(琵琶), 동족 열후(二胡)로 반주 하며, 선율은 대개 동일하다. 즉흥으로 가사를 지어 노래 부르고, 노랫소리는 제법 정취가 있으며, 연가(戀歌), 주가(酒歌), 제가(祭歌), 난로가(攔路歌), 이별가(離別歌)로 구분된다. 만약 운이 좋아 동족 소녀들이 부르는 즉흥 노래를 듣는다면 그들은 악기 반주와 지휘 없이도 노래가 조화롭고 아주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조화는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지탱해 주지 못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첸둥난 주민들은 생활의 안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마오족 남자들은 매년 파종하고 수확하는 시기에 ‘요우팡(游方)’하러 다니는데 마을을 다니며 노래를 불러 자기와 결혼할 여자를 찾는 것이다. 그들은 편하게 여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담소를 나누고 만약 거절당하면 거리낌 없이 떠난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태도도 태연하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 한 생명은 영원히 소실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새로 시작된다고 여긴다.

어쩌면 이 토지에 대한 열정은 첸둥난 사람들이 완강하게 지켜온 자신들의 전통을 인지도 모른다. 첸둥난 수도 카이리(凱里)에 있다 해도 어디에서든 소수 민족 복장을 입은 마을 사람을 볼 수 있다. 비록 현대문화가 TV전파를 통해 이곳 구석구석까지 전해졌어도 이곳 사람들은 여전히 예로부터 내려오는 생활방식에 따라 생활하고 있으며, 일부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매일 전통 복장을 입는다. 첸둥난의 민족 명절은 총 300여개로, 명절 때가 되면 사람들은 선명한 색채로 촘촘히 수놓은 의상을 입고, 각양각색의 은 장신구를 걸친다. 이는 푸른 대지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것 같다. 산간민요, 비가(飛歌), 연가(戀歌), 대가(大歌)를 부르고, 루성(蘆笙)반주에 맞춰 추는 춤, 동고(銅鼓)춤, 목고(木鼓)춤, 의자춤을 추고, 루성연주, 우퇴금(牛腿琴)연주, 투우, 투계, 경마, 용선경기..... 각종 꽃들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오색찬란한 것들이 사람을 매혹시킨다. 더구나 란루주(攔路酒), 란짜이주(攔寨酒), 란먼주(攔門酒)등 독특한 스타일의 접대 예절과 소박하지만, 예스럽고 우아한 마오족의 고상가옥, 동족의 고루(鼓樓), 평위교(風雨橋)는 확실히 ‘생존하는 민족 예술의 대사건’이다.

그 외에, 첸둥난에는 놀라운 자연경관이 있다. 이 녹색의 대지아래 독특하고 매혹적인 기이한 지하 종유동굴이 숨어있다. 또한 첸둥난의 산간지대는 장기간 강수의 침식으로 깎여 많은 깊은 산골짜기 협곡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우양강(舞陽河)이 95km에 달하는 긴 강에 깊은 협곡이 8개 있으며, 양안에 기이한 봉우리와 수려한 고개가 있고, 산세가 험준하며, 굽이굽이 흐르는 물은 산을 의지하고, 굽이진 봉우리가 물을 안고 있다. 위에서 아래까지 200여 개의 만(灣)과 200여 개의 모래사장이 있으며, 만(灣)마다 제각기 풍경이 있고, 모래사장마다 운치가 있어, 오색찬란한 자연 화량이 만들어진다. 그 중 고산에서 아래로 흘러 내리는 이곳의 폭포가 특히 눈길을 끈다. 이것들은 낭떠러지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리는데 마치 비단이 걸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새하얀 말총을 늘어놓은 것 같기도 하다. 때로는 희미한 안개에서 솟구쳐 오르는 용 같기도 하다. 많은 폭포들은 각각의 독특한 특색이 있으며, 계절에 따라, 각도의 이동에 따라, 고요함과 움직임의 변화에 따라 각종 다양한 형태와 정취를 뽐어낸다.

첸둥난에서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이곳에선 생명이 번성하고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또한 모든 것은 생명의 가치와 모든 개체의 독특성에서 분명해진다.

### ☞ 가 볼만한 곳 ☞

☞샤우양(下舞陽) : 샤우양경치구는 국가급 샤우양풍경명승지 10대 경치구 중 하나이다. 구이저우(貴州) 첸둥난 자치주(黔東南自治州) 진위안 현(鎮遠縣)과 스빙현(施秉縣)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 121km<sup>2</sup>, 33개의 경치구가 있다. 유람선과 도보 여행이 주를 이루며, 아름답고 수려한 경관이 가득하다. 협곡, 산, 강의 경치는 천하절색으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

경치구는 높은 협곡과 평온한 호수, 세차게 떨어지는 폭포, 카르스트 지형의 봉우리와 종유기둥, 무성하게 높게 뻗은 대나무, 가파른 폭포가 그 주를 이룬다. 호수의 경치와 산의 경치는 사람들을 유혹한다. ‘깨진 거울이 다시 모이듯’ 반은 수중에 반은 우뚝 드러내있고 원앙 무리가 물에서 노니는 모습이 정겹다. 기묘한

산디에수이(三疊水)는 옥쟁반에 물 떨어지듯 바로 깊은 못으로 떨어진다. 누구라도 ‘부르는 샘’의 신령을 부르기만 하면 부르면 물이 나오고 멈추면 물이 그친다. 신형(神形)을 한 봉우리의 형상은 마치 ‘공작이 꼬리를 펼친’것 같다. ‘대성사도(大聖師徒)’의 경관은 망중한을 느끼게 하고, 모든 경치구의 만은 그림이 되고, 걸음마다 풍경이 펼쳐져 여행자는 돌아가는 것을 잊고 계속 머무르게 된다. 신비한 샤우양은 천국보다 더욱 천국 같다. 뚜렷한 개성적 특성이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은 샤우양이 장강삼협(長江三峽)의 웅장함, 사천(四川) 어메이산(峨眉山)의 수려함, 계림(桂林) 리장(麗江)의 아름다움, 양수오(陽朔)의 절경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淸)나라 장군 임척서(林則徐)는 다음과 같은 명시를 남겼다.

‘행인은 산에 있는데 그림자는 물에 비친다. 몸은 안 떨어졌지만 간담이 서늘하다. (兩山夾溪溪水惡，一經秋烟鑿山脚。行人在山影在溪，此身未墜胆已落。)’

☞ 산무강(杉木河) : 산무강경치구는 국가급 우양강풍경구 10대 풍경구 중 하나로 꾸이저우(貴州) 첸둥난 자치주(黔東南自治州) 스빙 현(施秉縣) 서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19개의 관광명소가 있다. 산무강의 물은 인체에 자연치유효과가 있어 ‘신의 광천수’로 유명하다. 경치구는 맑고 투명한 샘물과 험준한 산봉우리들로 이루어 있으며, ‘웅장하고 수려하고 깊고, 기이한’ 자연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 경치구로 들어서면 산과 물이 잘 어우러져 전체 경치구가 깊으나 단혀 있지 않고 위험하지 않다. 강바닥은 하얀 모래가 깔려 모래언덕은 깨끗하기만 하다. 수중에는 자라, 게, 물고기, 새우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양쪽 기슭 절벽에는 덩굴이 얽혀있고, 고목은 하늘로 펼쳐져 있어 천년의 오랜 골짜기에 생기가 넘친다. 산무강은 스스로 자연으로 흘러 돌아가고, 미묘한 흥취가 연이어 나타나며 험하지 않다. 이것이 꾸이저우 동쪽에서 시작되는 녹색 생태 여행의 포인트이다. 산무강 사람과 자연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정전이다.

☞ 윈타이산(雲臺山) : 윈타이 산은 국가급 우양강풍경구 10대 풍경구 중 하나이다. 꾸이저우 성 첸둥난 주 스빙 현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현 시내에서 13km 떨어져있다.



원타이 산은 자연생태, 기상현상, 기이한 봉우리의 아름다운 물, 도교의 고찰, 인문경관을 특색으로 한다. 면적은 47km<sup>2</sup>이다. 원타이산, 파이원관(排雲關) 2대 유람구로 나뉘며, 24곳의 명소, 꾸이저우 동쪽 오래고 신기한 생태환경과 빼어난 곳을 찾아가는 여행을 할 수 있다.

☞중안강(中安江) : 중안강경치구는 국가급 무양강 풍경구 10대 풍경구 중 하나이다. 풍경구 서남부 황평 현(黃平縣) 시내 남쪽 20km 중안 진(中安鎮) 경내에 있다. 면적 16km<sup>2</sup>, 50곳의 명소가 있다. 민속마을 풍경구, 협곡서핑래프팅구, 완수이허협곡(篆水河峽谷) 풍경구, 중안진민족풍경구로 나뉜다. 경치구는 카이스트지형경관, 중안강수역경관, 산악경관, 인문경관 그리고 민족풍경으로 구성되어 독특한 정취가 있다. ‘세른 세 번의 파도’는 파도에 파도가 이어져 떠있는 동안 위험하진 않다. ‘나귀를 거꾸로 탄 사람’, ‘거울을 보는 미녀’는 의기양양하다. 간헐폭포는 정기적으로 뿜어 나와 아주 신비롭다. 강을 가로지르는 오랜 철교는 장관을 이룬다. 게다가 새벽에 벌어지는 소싸움, 새 싸움, 닭싸움은 민족 명절의 큰 재미이다. 또한 훌륭한 요리인 정통의 수안탕위(酸湯魚)도 있다.

#### 14. 칭하이후(青海湖) - 새와 함께하는 천국

☞지리적 위치 : 칭하이후(青海湖)는 칭짱고원(靑藏高原) 동북부에 위치하여 있으며, 르웨산(日月山), 다통산(大通山)과 굽이굽이 높고 낮은 칭하이산(靑海南山) 사이에 있다. 시닝(西寧)에서 15km 떨어져 있으며, 면적 4,456km<sup>2</sup>, 해발 3,106m이고, 호수 평균 수심 25m, 물이 차가우며 염분이 높다.

☞역사 : 칭하이(靑海)는 줄곧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일찍이 한대(漢代) 이전 창족사람은 이곳에서 유목생활을 하다가하여 ‘창하이(羌海)’라 불렀다. 서한(西漢) 말엽 왕망(王莽)은 호숫가에 서해군을 설치하였고 성을 쌓고 수비하였다. 남북조시대에 선비족(鮮卑族) 을불부락(乙佛部落)이 칭하이호(靑海湖)를 차지하였고, 수령을 ‘칭해왕(靑海王)’이라 하였다. 남북조 후기에서 당초까지 이곳은 토욕혼왕국(土谷渾王國)의 중심이었고, 호수 근처에는 수도 요탕성이 있었다. 당나라 때 토번과 당나라 장군 설인귀(薛仁貴), 이경현(李敬玄), 가서한(哥舒翰) 등은 연이어 호수 지역에서 격전을 벌였고, 두보(杜甫)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그대 못 보았는가? 칭해 별판에, 예로부터 백골 거두는 이 없어, 새 귀신 원통해 몸부림치고, 옛 귀신 울어, 비 오는 날 훌적훌적 우는 소리 들린다오. (君不見靑海頭，古來百骨無人收。新鬼煩冤舊鬼哭，天陰雨濕聲啾啾。)’

☞기후 : 이곳의 기후는 시원하고 상쾌하다. 작열하는 태양이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이라도 일일 평균 온도는 15℃정도로 이상적인 피서지이다.

☞동물 : 칭하이후는 야생동물들이 성장하기에 적합해 천국이나 다름없다. 그 곳은 중국 최대의 내륙 고원 습지이며, 물새 보호구역이다. 12만여 종의 새가 분포되어 있다. 호수 습지는 중국 1급 보호동물인 검은목두루미의 서식지이며, 번식지역이다. 봄철 20여 마리 검은목두루미가 번식하였다. 국가 2급 보호동물인 1500여 마리의 큰고니도 이곳에서 겨울을 보낸다. 보호구역에는 푸스고와(또는 중화대각 영양)와 히말라야 산양 등 많은 동물들이 분포해 있다.

르웨산(日月山)의 차가움, 따오탕허의 유수, 위엔즈성의 신비로움, 칭하이호의 끝없이 펼쳐진 바다, 봄철 드넓은 황금색 유채꽃 향기가 이따금 풍겨오고, 먼위안 셴미 삼림농장은 마치 무릉도원 같다.

칭하이후는 줄곧 북유럽의 바다요정 사이렌을 연상케 한다. 그녀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갑판수들이 스스로 배를 위험한 암초에 부딪히게 한다. 초원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여름에 칭하이후에 가서 차가 가는 길을 따라 호수를 바라본다면, 호수의 색깔은 하늘색, 밝은 파란색에서 점차 보석 같은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변화에 숨이 멎을 듯 하다. 칭하이후의 물은 맑아 수초의 잎 하나하나까지도 볼 수 있다. 호수 주변은 아주 고요해 물가 풀숲에서 작은 벌레가 뛰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한 가벼운 물결이 천천히 벼랑을 때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파란 하늘이 물에 비쳐 물은 더욱 파랗고 하늘은 더욱 푸르다. 점점이 떠있는 구름은 마치 붓 같다. 강기슭에 앉아 멀리 산수가 접한 곳을 바라보면 물새가 수면을 스치며 날아오르고, 햇빛이 물에 반사되어 맑고 깨끗한 물결이 반짝거리며 수초는 하늘거리니 보는 이로 하여금 영원히 이곳에서 살고 싶게 한다.

하지만, 오늘날 아름다운 칭하이후의 환경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곳을 사랑하는 이들의 근심이 늘고 있다. 20세기말 기후는 따뜻해지고 건조해져, 호수 주변의 강수가 적어지고, 칭하이후로 흘러들어가는 강수량이 감소하고 증발량은 증가하는 등 호수물의 '수지'가 불균형을 이뤘다. 게다가 인위적인 활동으로 1957년부터 1988년까지 호수수위는 매년 평균 약10cm씩 낮아지고, 호수의 염분 함량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칭하이후 서북부 10여km는 이미 사구에 둘러싸였으며, 호수 모래사장의 염분 축적은 심각하다. 냐오따오(鳥島)주변은 온통 사막으로 변했고, 이런 토지 사막화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매해 여름의 드넓은 유채꽃의 아름다움은 사람을 감탄하게 했다. 하지만 유채밭이 나타나면서 대량의 초원은 농업종합개발용지로 개간되었고, 호수 생태환경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그 외 생태악화로 인해 전체 면적의 15~20%의 생물 물종이 위협을 받았으며, 티베트 야생 당나귀, 야크 등 희귀 동물의 개체 수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또한 맛

과 영양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황어는 수위가 낮아지고 무분별한 어획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칭하이후의 매력적인 경관은 중국 국내외에서 명성을 떨치는 명승지 - 냐오따오는 칭하이후 서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그 길이는 약 500m, 면적은 겨우 0.8km<sup>2</sup>이다. 이곳은 거석이 겹겹이 솟아있어 호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우뚝 서 각기 다른 크기와 형상을 형성하였는데 이것이 냐오따오(鳥島)이다. - 떠들썩한 새들의 왕국이다. 매년 5,6월은 새를 감상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다. 이때 중국 남쪽과 동남아 등지에서 온 얼룩머리기러기(斑頭雁), 갈색머리갈매기(棕頭鷗), 고기갈매기(魚鷗), 적마압(赤麻鴨), 검은목두루미(黑頸鶴), 깃가마우지(鸕鶿) 등 10여종의 철새가 날아와 고향으로 돌아갈 무리를 짓는 새가 10만여 마리에 달한다. 새들은 풀과 가지를 나르고, 흙을 나르고 둥지를 틀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기 바쁘다. 냐오따오에 오르면 각양각색의 새둥지가 뽁뽁하다. 오색찬란한 새알이 발디딜 틈 없이 지천에 가득하여 눈부시다. 새무리들은 빠르게 비상하여 하늘을 가리는 것이 장관을 이룬다. 천하의 장관이라 할 수 있다. 철새는 파란하늘을 비상하고 푸른 물결을 노닐고 백사장에 북적이며 서식한다. 칭하이후의 어류와 호반에 서식하는 식물은 철새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여 이곳에 새들의 '낙원'이 형성됐다. 천적이 나타나면 많은 새무리들이 일어나 공격해 도망가게 한다.

티베트인들의 마음에 '신호(神湖)'인 칭하이후는 설상고원(雪霜高原)의 거울이며, 우리는 이 거울이 영원히 깨끗하게 유지되기를 바란다.

### ❧ 가 볼만한 곳 ❧

❧ 따오탕 허(倒淌河:거꾸로 흐르는 강) : 동쪽 르웨산(日月山)에서 시작해 서쪽 칭하이후에 이르며, 40여km가 구불구불 이어져 있다. 따오탕 허의 이름은 물의 흐름의 방향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강물은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데 이 강은 동에서 서로 흐른다. 따오탕 허에 관해 한족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

가 전해진다. 문성공주(文成公主)가 티베트(西藏)로 가던 중 르웨산에 도착했을 때 돌아보니 장안은 보이지 않고 서쪽은 황량하여 고향과 부모님이 그리워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거꾸로 흐르는 강을 이루었다고 한다.

☞ 나오다오(鳥道) : 나오다오는 칭하이후 서쪽에 위치해 있다. 매년 수천마리 새의 서식지가 된다. 종류도 다양하여 갈매기, 갯가마우지, 백조, 두루미, 희귀종인 검은목두루미는 칭하이후의 생태 장관을 이룬다. 5월에서 7월까지 새를 보기에 가장 좋은 기간이며, 백조를 보고 싶다면 11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가 가장 좋다.

☞ 차카염호(茶卡鹽湖) : 칭짱고원(靑藏高原) 이전은 바다의 일부분이었다. 장기간의 지각운동으로 지면이 융기해 세계에서 가장 큰 고원이 되었다. 지면에 남아있던 바닷물이 낮은 지대로 흘러 많은 염호와 못을 형성하였고, 차카염호는 그 중 하나이다. 3,000여년의 채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차카염호는 소금 왕국으로 차위에, 땅위에, 심지어 공기 중에도 염분이 있다. 먼 곳에선 소금 채로선이 소금을 캐고 가까운 곳에서 그 소금의 결정체를 보면 수정처럼 반짝거린다. 때론 낮에 이곳에서 보면 수면위에 형성되는 신기루를 볼 수 있는데, 때로는 가옥처럼 보이고, 때로는 소 떼, 양떼가 호수에서 수영을 하는 것 같다.